

도시빈곤층의 공동체 형성 고찰
-서울시 쪽방밀집지역 저렴쪽방 중심으로



연구책임

하춘 경기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커뮤니티디자인연구실

연구진

김혜민 광운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박사과정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목차

01 연구개요	1
1_연구배경 및 목적	1
2_연구의 방법 및 구성	4
02 서울시 쪽방밀집지역 저렴쪽방	6
1_서울시 쪽방밀집지역 현황	6
2_서울시 쪽방밀집지역 주거복지지원 정책 내 저렴쪽방	11
03 저렴쪽방 디딤돌하우스 조사	18
1_디딤돌하우스 공간구조	20
2_디딤돌하우스 거주민인터뷰	27
3_디딤돌하우스 조사 분석	32
04 주거복지관점에서 접근한 도시빈곤층의 공동체 형성에 대한 고찰	42
1_자립을 위한 디딤돌로서의 주거공동체	43
2_정책제안	45
3_결론	52
참고문헌	55
부록	56

표 목차

[표 2-1] 서울시 쪽방밀집지역 위치	7
[표 2-2] 서울시 쪽방주민 현황	9
[표 2-3] 2019년 서울시 쪽방상당소	11
[표 2-4] 저렴쪽방 현황	16
[표 3-1] 디딤돌하우스 공용공간	21
[표 3-2] 서울역 디딤돌하우스 인터뷰 참여자 기본정보	29
[표 3-3] 남대문 디딤돌하우스 인터뷰 참여자 기본정보	30
[표 3-4] 인터뷰질문	31
[표 3-5] 서울역 디딤돌하우스와 남대문디딤돌하우스의 인터뷰 분석 요약	33
[표 3-6] 서울역 디딤돌하우스와 남대문디딤돌하우스의 환경에 따른 차이	39

그림 목차

[그림 2-1] 서울시 쪽방밀집지역 내 쪽방수	10
[그림 2-2] 서울시 쪽방밀집지역 내 쪽방 평균월세	10
[그림 2-3] 서울시 쪽방밀집지역 주거지원사업	13
[그림 2-4] 저렴쪽방 운영구조	15
[그림 3-1] 디딤돌하우스 현장조사 구조	20
[그림 3-2] 창신동 디딤돌하우스 공간	23
[그림 3-3] 서울역 디딤돌하우스 공간구조	24
[그림 3-4] 남대문 디딤돌하우스 공간구조	26
[그림 3-5] 남대문 디딤돌하우스 인터뷰	27
[그림 3-6] 인터뷰진행과정	28
[그림 3-7] 인터뷰 분석과정	32
[그림 3-8] 서울역 디딤돌하우스 내 거주민이 작성한 안내문	40
[그림 4-1] 사회적 취약성과 안전관계	43
[그림 4-2] 디딤돌하우스 역할 모델	50
[그림 4-3] 운영주체의 운영부담	52

01. 연구개요

1_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IMF 외환위기로 노숙인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1999년 12월 대통령 지시로 쪽방상담소가 설치되고, 2013년 1월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에 쪽방거주자 지원대책을 시달리며 서울시의 쪽방거주자 지원정책은 시작되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당시 노숙인 문제를 경제상황이 개선되고 경기가 좋아지면 자연히 없어질 일시적인 사회문제로 인식함으로써 쪽방상담소에 대한 업무는 자치구에 맡겨 두다시피 하다, 노숙인문제가 예측과 달리 장기화 됨과 ‘서울형 복지 체계’ 구축을 모토로 삼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 희망드림 프로젝트’의 1개 과제로 선정됨으로서, 2008년 11월 28일 시장방침 “소외계층 밀집지역, 서울시 5대 쪽방촌 환경개선 및 자활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며 적극적인 지원(이진우 외, 2017)에 나서게 된다.

현재 서울시는 쪽방이 밀집되어 있는 종로구 돈의동, 종로구 창신동, 중구 남대문, 용산구 동자동,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개의 지역을 ‘서울시 5대 쪽방밀집지역’으로 규정하고 쪽방 상담소 등을 통해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 5대 쪽방밀집지역에는 4,294개의 쪽방이 있으며 3,546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¹⁾

쪽방은 ‘열악한 주거환경’,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등의 키워드로 특히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 단골 기사로 언급되고 있지만, 이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도시에 거주

1) 서울시(2018), 「2017년 서울시 쪽방 밀집지역 건물실태 및 주민의견 조사 결과 보고서」

하고 있는 빈곤층에게 쪽방은 노숙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 진입하는 첫 번째 거처이자, 노숙으로 가기 바로 전 단계에 선택하는 마지막 거처(김성근·류창수, 2015)인 주거의 최전방이라 할 수 있다.

쪽방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의 임대주택과는 2012년 영등포 쪽방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영등포 쪽방촌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시작하였고, 2015년 ‘영등포 쪽방촌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였다. 2013년 자활지원과는 종로구 창신동, 용산구 동자동, 중구 남대문 쪽방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복지공동체공모사업과 디딤돌프로젝트를 통해 저렴쪽방 사업을 진행하였고, 2019년 상반기 현재 7개의 건물이 저렴쪽방으로 운영되고 있다. 종로구 돈의동 쪽방밀집지역에는 종로구가 국토부의 새뜰사업²⁾에 공모하여 2015년~2019년 기초인프라정비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 주거환경개선 작업을 진행하였다.

서울시는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쪽방이 도시 빈곤층의 최전방 주거로서 최소한의 기능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더불어 쪽방 거주민 사이의 공동체 형성과 자립을 위해 거점공간으로서 공동시설 설치와 다양한 주민프로그램 진행 등 다방면에서 여러 가지 지원 및 정책을 시도 중이다. 그러나 쪽방의 거주환경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열악하며, 쪽방주민이 쪽방을 벗어나 일상으로 진입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

2) 연구목적

‘부지런하지 못하여’, ‘의지가 약하여’ 등으로 빈민 문제를 나태함 등의 개인 문제로 치부 해버리고 외면할 수도 있으나, 빈곤은 개인의 ‘근면’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김동춘 외(2000)에서 다니엘 코헨을 인용하며 전반적으로 절대 빈곤인구는 점차 축소되었으나 불평등은 심화되어 왔고, 불평등이 가시화되면서 빈곤은 분명히 사회적 문제이며, 사회정책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세계화된 경제 질서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이러한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킨 계기가 되었고, 빈곤 퇴치는 일국의 사회복지 정책만으로 해결되기 어려

2) “국민행복, 지역희망”을 비전으로 하는 박근혜정부 지역발전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시작된 사업으로, 달동네, 쪽방촌 등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에 대한 생활 기반 시설(인프라), 집수리 지원 및 돌봄·일자리 등 휴먼케어를 종합패키지로 지원_ 2016.0203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지역위와 함께 ‘취약지역을 새뜰마을로 재생’ 지원 확대>

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변화기 시작하였다고 언급한다. 이와 더불어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빈곤문제를 실업이 발생한 두 가지 경로와 저소득계층에서의 실업 집중현상, 그리고 노동의 형태에 대한 변화에 민첩하게 적응할 수 없는 저소득계층의 현실적인 문제를 바탕으로 ‘외환위기 이후 빈곤율 증가의 근본 원인은 한국사회의 전통적인 빈곤생산 구조에 있음’을 언급하며,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는 빈부격차 확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 취업자와 실업자 간의 분열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한 세대에 그치지 않고, 교육의 차등화를 거쳐 다음 세대로 세습될 위험성이 있다 하였다. 이는 현재의 빈곤문제가 개선되기 보다는 더욱 열악한 형태로 재생산될 위험성을 안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 쪽방은 도시 빈곤층이 노숙과 일상생활 진입의 경계선에 있는 최전방의 주거이다. 이러한 쪽방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쪽방 ‘촌’이라 불리고 있듯, 공간적 격리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는 형태로 이러한 단절은 거주자들에게 제한된 사회관계망, 고용이나 건강의 악화, 사회적 낙인 등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빈곤이 단순한 경제적 결핍이라는 단일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배제와 문화·심리적 소외, 공간적 격리까지 결합한 다차원적인 문제(신명호, 2004)로 사회구성원이 함께 해결해야 사회의 문제로 바라봐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쪽방이 밀집되어 있는 쪽방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몇 년간 쪽방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으로 쪽방 거주민들의 주거비가 가중됨에 따라 서울시가 ‘쪽방주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지속가능한 주거공동체마련’을 목표³⁾로 진행한 서울시의 도시빈곤층 주거복지 정책의 하나인 ‘저렴쪽방 사업’에 집중하여 살펴보았다. 연구자는 저렴쪽방 사업이 ‘방’ 또는 ‘촌’ 즉, ‘개인’ 또는 ‘동네’라는 단위에서 접근했던 그동안의 서울시 주거지원정책과 달리 공동체의 최소 단위라고 할 수 있는 ‘집’의 단위에서 접근함에 있어 그동안의 정책과 차별성이 있으며 그 차별성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쪽방이 노숙과 일상생활의 경계에 있는 도시 빈곤층의 최전방 주거로서의 기능을 넘어 일상생활의 진입 및 복귀를 꿈꾸며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주거공동체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지, 주거공동체 형성을 위해 주거

3) 17년도 쪽방촌 주민 생활안정지원 계획_복지본부 자활지원과 제공문서

내 ‘공용공간’이 ‘사회적 접촉과 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살펴보려 한다. 특히 삶을 담고 있는 ‘집’이라는 거주 공간 내에서 ‘공용공간이 사회적 접촉과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의 가능성은 나아가 주거공동체 형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공동체의 최소단위인 주거공동체를 거주민 스스로 만들어 가며 쪽방 주민이 공동체의 주체가 되어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힘과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자립의 힘을 키워갈 수 있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2_연구의 방법 및 구성

연구자는 이 연구를 통해 ① 저렴쪽방 임대지원 사업의 지향점인 ‘월세인하 및 안정화’와 ‘공동체 형성’을 거주자들은 실감하고 있는지? ② 거주공간 내 공용공간은 거주민들의 마주침-대화-규칙을 만들어내는 공간으로서, 공동체형성의 최소 역할을 하고 있는지? ③ 저렴쪽방 사업이 기존 ‘쪽방’과 ‘쪽방촌’으로만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생활공간인 ‘집’의 관점에서 접근해 공동체형성의 기초단위로서 가능성 발견을 할 수 있는가? 라는 3가지의 연구 질문을 가지고 이 연구를 시작하였다. 연구자의 연구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저렴쪽방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3개의 지역에 위치(새꿈하우스는 서울역에만 존재)하고 있는 건물 중, 공용공간이 있는 디딤돌하우스를 연구 대상지로 선택, ‘공용공간은 사회적 관계 또는 접촉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워 디딤돌 하우스의 공간분석과 거주민 인터뷰를 통해 쪽방의 거주공간 내 공용공간의 기능 및 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진행방법은 자료조사와 현상조사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연구내용은 저렴쪽방에 대한 정책적 내용 정리 및 현장조사를 통해 발견된 저렴쪽방 정책의 효과와 ‘주거공동체 형성’의 관점에서 살펴 본 쪽방거주민에게 ‘이웃’과 ‘공용공간’의 의미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조사는 서울시 쪽방에 관련된 정책보고서와 논문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이는 서울시의 쪽방촌의 현황과 서울시의 5개의 쪽방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도시빈곤층에 대한 대표적인 주거지원 사업 내용을 살펴보는 것의 바탕이 되었다. 그 중 이

연구 질문의 바탕이 되는 ‘저렴쪽방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 중 부족하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인 서울시 자활지원과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담당자의 인터뷰를 통해 보충하였다. 이는 연구자가 저가쪽방 사업과 타 사업들이 가진 차이점을 정의하고 연구자가 집중하여 들여다 볼 저가쪽방사업이 포함된 복지공동체사업과 디딤돌하우스 프로젝트의 관련된 서울시 문서를 살핌으로서 일차적으로 저가쪽방사업이 가지는 의미와 관계자들의 평가를 정리하는 과정으로 이에 따른 내용은 서울시 5대 쪽방밀집지역의 현황과 관련 주거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2장에 정리하였다.

현장조사는 연구자의 연구 질문이자 저렴한쪽방 사업의 두 번째 목표인 ‘주거공동체 형성’과 거주민의 관점에서의 저렴한쪽방 사업을 살펴보기 위해 디딤돌하우스의 공용공간을 중심으로 한 공간실측 및 분석과 현장관찰, 디딤돌하우스 거주민 인터뷰의 형태로 진행하였다. 공용공간을 중심으로 진행된 공간실측 작업과 인터뷰 작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거주민들이 외부인인 연구원을 대하는 거주민들의 반응도 함께 살폈다. 공간실측과 인터뷰에 참여했던 연구진은 간단한 미팅을 통해 인터뷰 진행 사항 및 현장관찰 내용을 공유하고 이는 거주민들이 외부인 연구진을 받아들이는 행태를 분석하는 자료로 쓰였다. 이는 3장에 정리 분석 하였다. 그리고 연구진행을 위해 상담소의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운영자 인터뷰도 함께 진행하였으며, 이는 2장과 4장에 일부 언급되어 있다.

연구자가 이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한 질문이자 저렴한쪽방 중 디딤돌하우스와 관련된 자료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석하고 제안하는 내용은 4장에 정리하여 답았다.

02. 서울시 쪽방촌 저렴쪽방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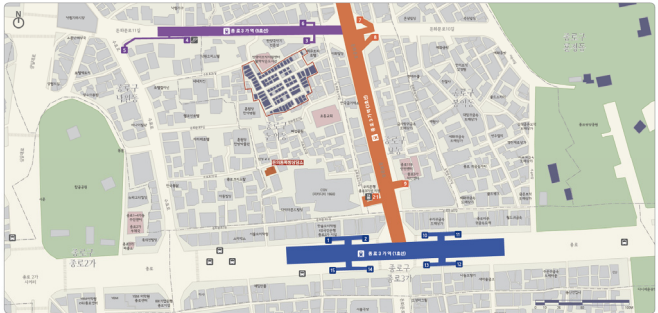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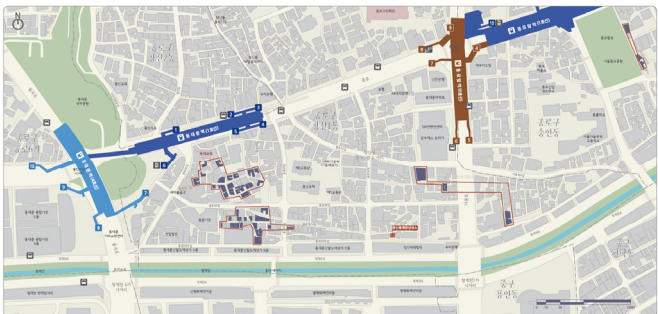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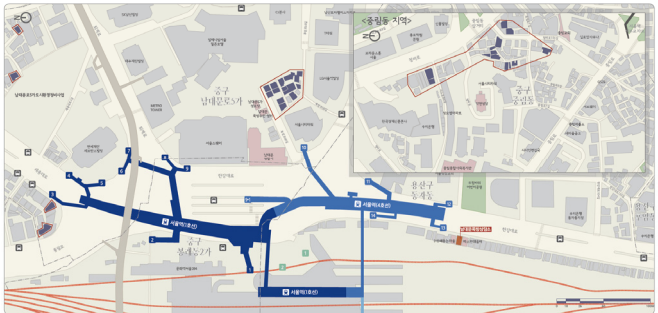
IMF 외환위기 직후 급격하게 증가한 노숙자로 그 이전부터 도시 빈민의 주거형태로 존재하고 있던 쪽방촌 또한 사회로부터 관심을 받게 된다. 이 관심은 쪽방상담소 설립 등으로 이어졌으나, 당시의 노숙인의 문제는 경제상황이 개선되고 경기가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일시적인 사회문제로 인식됨에 따라 관심에 비해 지속적이진 못했다. 일시적일것이라 생각했던 노숙인의 문제는 IMF 외환위기로 발생한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의 변화와 함께 발병 될 문제였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라는 해석과 함께 사회구성원이 풀어가야 사회문제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2011년 ‘노숙인(露宿人)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복지법)이 제정되었다. 노숙인 복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노숙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 현재 쪽방에 거주하고 있는 쪽방주민도 노숙인의 일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쪽방주민의 기초생활지원, 행정지원, 의료지원 자활·자립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는 쪽방상담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쪽방상담소를 말한다”라고 ‘노숙인복지법’의 시행규칙에 ‘법 제16조 제1항 제7호에 대해 언급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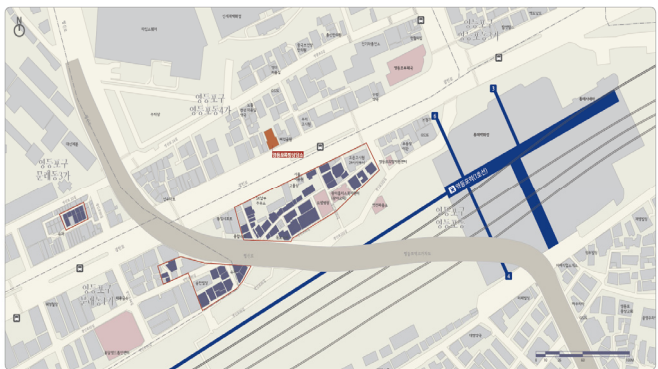
1_서울시 쪽방촌 현황

서울시는 현재 ① 종로구 돈의동 쪽방밀집지역 - 돈의동 103번지 일대, ② 종로구 창신

동 쪽방밀집지역 - 창신1동 지역, ③ 중구 남대문 쪽방밀집지역 - 회현동, 중림동, 남대문경찰서 뒤, 연세빌딩 뒤 ④ 용산구 서울역 쪽방밀집지역 - 동자동, 갈월동, 후암동 ⑤ 영등포구 영등포 쪽방밀집지역 - 영등포동, 영등포본동, 문래동을 ‘서울시 5대 쪽방밀집지역’으로 규정하여 관리 지원하고 있다. 청량리역 근처 전농동의 일부지역에 쪽방이 밀집하여 존재하고 있었으나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로 인하여 쪽방건물이 철거됨에 2016년 이후 서울시가 관리 지원하고 있던 쪽방밀집지역에서 전농동은 제외되었다.

[표 2-1] 서울시 쪽방밀집지역 위치

종로구 돈의동 쪽방밀집지역	
종로구 창신동 쪽방밀집지역	
중구 남대문 쪽방밀집지역	

용산구 서울역 쪽방밀집지역	
동자동, 갈월동, 후암동	
영등포구 영등포 쪽방밀집지역	
영등포동, 영등포본동, 문래동	

서울의 쪽방들은 위의 [표 2-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종로3가역, 동대문역, 서울역, 영등포역 등 도심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역 주변에 밀집되어 있어 역세권의 영향권 안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동자동 9-20번지 퇴거사건⁴⁾을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역세권 영향권 안에 도시 빈곤층의 주거지가 있다는 것은 자본의 논리에 의해 주거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음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이진우 외(2017)에서 서울시 소재의 쪽방촌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대부분의 지역이 집창촌에서 비롯됨으로 추정하고, 해당 지역의 성매매업이 쇠퇴하면서 성매매에 쓰이던 방이 더 잘게 쪼개서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도는 도시 빈곤층에게 일세, 월세를 받으며 임대해 주는 형태로 변형되었고, 이러한 변형으로 인해 기초적인 생활편의시설들이 고려

4) 9-20번지는 건축주가 리모델링 후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하고자 2015년 2월 4일 일방적으로 입주인 강제퇴거를 공고, 이에 거주민들은 강제퇴거에 대항하였다. 주민자치 조직인 동자동사랑방과 서울역쪽방상담소가 건물주 면담, 서울시장과 의 접견, 기자회견, 국민권익위원회, 법률구조 등에 호소하는 등 다방면으로 문제해결에 나섰지만, 건물주는 단수조치, 절전 그리도 문짝을 떼어내는 등 강제철거 진행을 멈추지 않았고, 거주민들은 여러 불평을 감수하며, 공사를 저지하기 위한 물리적 대응을 했고, 2015년 9월9일 법원이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건물주와 거주민 사이의 싸움은 마무리되었다. 그 후 서울시가 9-20번지를 건물주로부터 임대하여 현재 상담소에서 새꿈하우스⁴호로 위탁운영 중이다. (서울역 디딤돌하우스에서 진행된 인문학수업 활동보고서에 삽입된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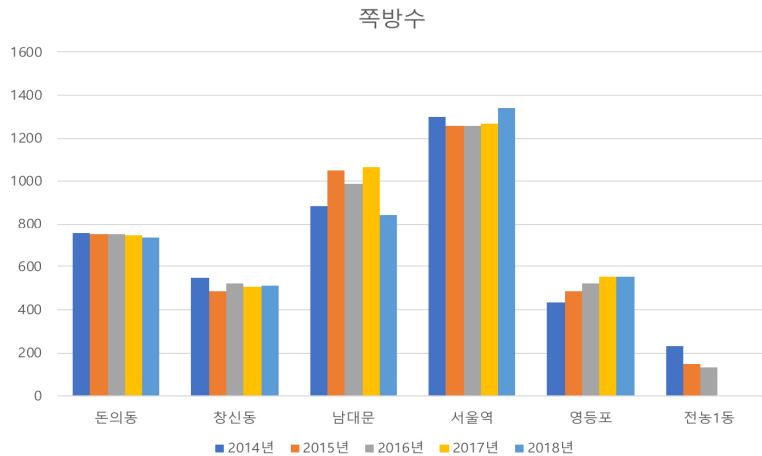
되지 않는 주거형태가 형성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쪽방의 주거환경이 열악함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서울시 자활지원과 제공자료에 따르면 서울소재 주요 쪽방 밀집지역인 돈의동, 창신동, 남대문, 서울역, 영등포에는 2018년 12월 말 기준 316개의 쪽방 건물에 3,855개의 쪽방이 있으며, 3,183명이 거주하고 있다. 쪽방거주민 중 54%가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전체의 3분의 1정도가 65세 이상의 홀몸노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 2-2] 서울시 쪽방주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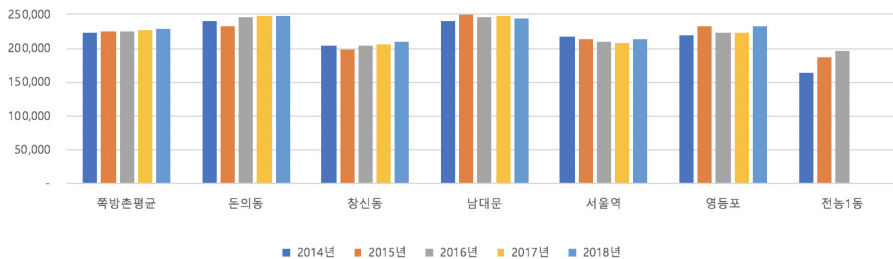
구별		쪽방거주자			기초생활 수급자	65세 홀몸노인	장애인
		계	남	여			
합계		3,183	2,752 (86%)	431 (14%)	1,674 (53%)	1,041 (33%)	315 (10%)
종로구	돈의동	570	537 (94%)	33 (6%)	283 (50%)	195 (34%)	55 (10%)
	창신동	328	275 (84%)	53 (16%)	140 (43%)	124 (38%)	36 (11%)
중구		717	639 (89%)	78 (11%)	323 (45%)	187 (26%)	34 (5%)
용산구		1,054	922 (87%)	132 (13%)	558 (53%)	331 (31%)	137 (13%)
영등포구		514	379 (74%)	135 (26%)	370 (72%)	204 (40%)	53 (10%)

2014년도부터 매년 실시된 ‘서울시 쪽방건물 및 주민 실태보고서’에 의하면, 서울시의 5대 쪽방밀집지역에는 ‘14년-4,150개, 15년-4,180개, 16년-4,170개, 17년-4,294개’ 쪽방이었으며, 서울시 자활지원과 제공자료에 의하면 2018년 12월 기준으로 3,855개의 쪽방이 있음으로 파악된다. 재개발 등으로 인해 쪽방수의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재개발 등으로 인해 지역을 떠나야 했던 쪽방주민들은 근처 쪽방밀집지역의 쪽방으로 이동하는 등 쪽방의 수적인 규모에는 큰 변화가 없다.



[그림 2-1] 서울시 쪽방밀집지역 내 쪽방수

쪽방의 대부분은 보증금 없는 월세 형태로 계약되고 있으며, ‘2018년 서울시 쪽방건물 및 주민 실태보고서’에 의하면 24만 원~25만 원 대의 방의 수가 가장 많았고, 평균 월세는 228,188원이다. 14년-222,993원, 15년-225,815원, 16년-224,723원, 17년-226,743원, 18년-228,188원으로 쪽방의 월세는 꾸준히 오르고 있으며, 2018년 돈의동의 평균월세는 247,599원으로 5개 지역에서 가장 높았다.



[그림 2-2] 서울시 쪽방밀집지역 내 쪽방 평균월세

5개의 쪽방밀집지역에는 쪽방주민의 기초생활지원, 행정지원, 의료지원 자활·자립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립 쪽방상담소가 위탁운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쪽방상담소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자활지원과는 2017년 19월 쪽방상담소 시립화(시립

사회복지시설로 전환) 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 12월에 수탁자공모를 통해 운영자를 선정, 현재 4개의 위탁운영자가 5개의 쪽방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위탁계약기간은 5년이다. 자활지원과는 「쪽방, 쪽방촌, 쪽방상담소」 연구를 통해 쪽방상담소에 대한 전면적인 기능을 재정립하였고, 연구보고서에 쪽방상담소의 사업내용을 상담 및 행정지원, 보건·의료지원, 기초생활지원(생계 및 생활지원), 자활·자립지원, 정서지원(여가지원), 주거지원, 주거 안전 관리, 홍보, 상담소별 특화사업으로 정리하고 있다.

[표 2-3] 2019년 서울시 쪽방상담소

명칭	지역	위치	위탁운영자
서울특별시립 돈의동쪽방상담소	- 종로구 돈의동 103 번지 일대	종로구 돈화문로9가길 20-2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서울특별시립 창신동쪽방상담소	- 종로구 창신1동 지역	종로구 종로50라길 31	사회복지법인 우리모두복지재단
서울특별시립 남대문쪽방상담소	- 중구 남대문로5가 일대 - 중림동 악한성당 뒤쪽골목 일대	용산구 한강대로 379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서울특별시립 서울역쪽방상담소	- 용산구 동자동 지역	용산구 후암로57길 35-15	사회복지법인 온누리복지재단
서울특별시립 영등포쪽방상담소	- 영등포동 지역 - 문래동1가, 3가 일대	영등포구 경인로 823-2	사단법인 사막에길을내는사람들

2_서울시 주거복지지원 정책 내 저렴쪽방사업

1) 서울 쪽방밀집지역 주거복지지원정책

서울의 5개의 쪽방밀집지역 주거지원사업은 영등포 쪽방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 '영등포쪽방촌 리모델링 사업'과 종로구 창신동과 용산구 서울역, 중구 남대문 쪽방밀집 지역의 임대건물을 중심으로 진행된 '저렴쪽방 사업'⁵⁾ 그리고 돈의동 쪽방밀집지역을

5) 지역공동체공모사업과 디딤돌프로젝트의 세부과제 중 하나였기 때문에 문서에 따라 '저가' 또는 '저렴'과 '쪽방' 또는 '주택'이 결합된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복지공동체공모사업과 디딤돌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한 서울시 자활지원과에서 발행한 연구보고서 「쪽방, 쪽방촌, 쪽방상담소」의 표현을 따르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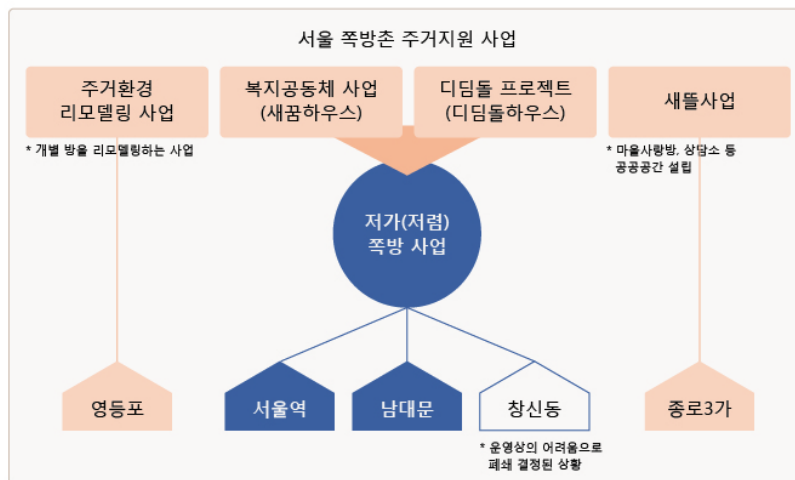
대상으로 진행된 ‘새뜰마을 사업’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2012년 ‘영등포쪽방촌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진행된 ‘영등포쪽방촌 리모델링 사업’은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 보장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주택법 제3조, 제5조의 3)과 시민이 최저한의 주거수준을 확보하여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서울시 주택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사회적 배려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지원하고 최저 주거안전선 마련 및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서울시 주택정책실을 중심으로 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었다. 그 당시 ‘영등포쪽방촌 리모델링사업’은 리모델링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이라는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음을 예측하였고,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리모델링 효과로 인해 임대료가 인상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를 인지하였다. 이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해 건물주, 관리인에게 돌아가는 지원은 없으며 쪽방촌 거주민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의 취지를 살리고 거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향후 5년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광야교회의 도움으로 건물주와 관리인들을 설득하여 받았으며, 관련 내용은 업무 협약서에 명기하여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서울시, 2013)하는 장치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실시된 조사들에 의하면 리모델링의 효과는 [그림 2-2] 논의문 쪽방 평균월세가 14년 219,049원에서 15년 233,312원으로 오름으로 쪽방주민의 월세 부담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러나 ‘영등포 쪽방촌 리모델링사업’은 공공이 도시 저소득층의 비주택 구조인 쪽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최소한의 주거복지를 구현하려는 노력(이영범, 2013)으로, 개인사적재산에 대한 지원으로 읽힐 수 있는 사업의 표면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그 공간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적자금의 투입 시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창신동과 서울역 및 남대문 쪽방밀집지역에 있는 저렴쪽방은 복지공동체사업과 디딤돌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된 것으로, 기존의 쪽방을 건물주로부터 임차한 후 리모델링하여 쪽방 주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임대지원사업이다. 2013년 서울역쪽방상당소와 남대문쪽방상당소가 복지공동체공모사업에 지원 선정되었고, 복지공동체모금의 지원을 받아 저렴쪽방사업을 진행하려 하였지만, 남대문 쪽방밀집지역은 건물임대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사업비를 반납하였고, 서울역 쪽방밀집지역에만 ‘새꿈하우스’라는 이름의 저렴쪽방이 생겼다. 그 후 서울시와 현대엔지니어링 협력체결 프로젝트인 디딤돌프

로젝트를 통해 2015년 12월에 창신동 쪽방밀집지역에 저렴쪽방인 디딤돌하우스1호와 2016년 6월에 서울역 쪽방밀집지역에 디딤돌하우스 2호, 2017년 7월에 남대문 쪽방밀집지역에 디딤돌하우스 3호가 생기게 되었다. 저렴쪽방 사업은 뒤에서 집중적으로 살펴 보겠지만, 쪽‘방’이라는 개인주거공간으로만 바라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편의시설 등의 개선과 함께 공용공간이 포함된 건축물을 다룸으로써 쪽방을 여러 개인이 함께 거주하는 공간으로 바라봄으로 인해 주거안정화와 함께 주거공동체 형성이라는 목표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종로구는 2015년 서울시 지역발전위원회와 교통부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4년간 50억의 예산을 받아 2015~2019년 국토부공모사업인 ‘새뜰사업’을 종로구 돈의문 103번지 일대 즉 종로구 돈의동 쪽방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지역발전정책에서 소외된 주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동체 회복을 통해 지속가능한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기초인프라 정비,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주택정비, 일자리 창출, 공동체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⁶⁾ 종로구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사업비의 큰 부분이 사용된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종로구 돈의동 106번지에 위치하며, 184㎡부지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578㎡ 규모이다. 욕실, 주방, 세탁실, 서가, 작업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림 2-3] 서울시 쪽방밀집지역 주거지원사업

6) 종로구 홈페이지 공개자료 「2018 복지분야 종합감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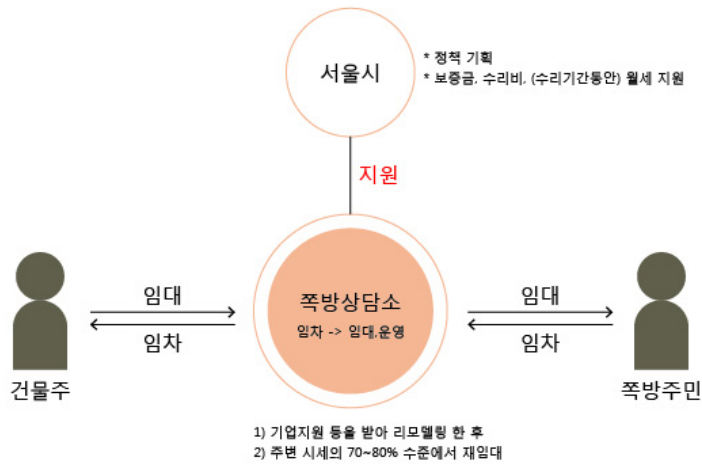
2) 저렴한쪽방⁷⁾

연구자는 서울시의 쪽방밀집지역 주거지원 사업 중 저렴한쪽방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건축 공간적 관점에서 ‘영등 쪽방촌 리모델링 사업’은 쪽 ‘방’이라 불리는 개인의 공간인 ‘방’의 관점에서 접근, 종로3가의 ‘새뜰사업’은 쪽방‘촌’이라는 ‘동네’ 관점에서 접근했다고 해석하였다. 연구자가 저렴한쪽방 특히 디딤돌하우스에 집중하여 살펴보려함은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가장 최초의 공동체이자 최소의 공동체는 생활을 공유하는 ‘주거공동체’라 생각함이고, 그동안 개인의 공간인 ‘방’ 또는 쪽방주민이 모여 사는 ‘동네’의 관점에서 접근했던 쪽방에 대한 지원들이 ‘집’이라는 공동체의 최소 단위가 만들어지고 작동하는 공간을 대상으로 접근함에 차별성을 가질 것이라는 기대이기도 하다.

쪽방의 임대구조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쪽방건물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직접 거주민에게 임대하는 방식과 건물주가 관리인을 두고 관리인이 쪽방거주민으로부터 월세를 받아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며 관리인이 중간이득을 취하는 2가지 구조가 있다. 쪽방은 대부분 보증금이 없는 월세의 형태로 계약되며, 월세에는 전기세 난방비 등 공과금이 포함되어 책정된다.

저렴쪽방 임대지원 사업은 쪽방촌의 지속적인 월세인상으로 인해 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그로 인한 가처분 소득 잠식, 노숙으로 이어지는 위험을 방지하고자 시작된 사업이다. 2013년도 서울시 복지공동체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저렴한쪽방은 기존 쪽방건물을 지역상당소가 임차해 기업지원 등을 받아 리모델링한 후, 주변시세의 70~80% 수준에서 쪽방주민들에게 쪽방을 재임대하는 구조이다. 쪽방상당소가 “이익을 남길 필요가 없는 관리인(전대업자)”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사업이며, 지역별로 거점확보 방식으로 추진, 사업 이후 지역의 월세를 실질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사업이다.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지속가능한 주거공동체 육성을 목표(이진우 외, 2017)로 하고 있다.

7) 서울시내부문서 및 상당소 인터뷰 등에서 저가쪽방, 저렴한쪽방 두 개의 단어로 혼재되어 사용되어 있으나, 저렴한쪽방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한 서울시 자활지원과에서 발행한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연구보고서 <쪽방, 쪽방촌, 쪽방상당소>에 기재된 표기를 따라,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저렴쪽방’으로 표기하겠다.



[그림 2-4] 저렴쪽방 운영구조

‘저렴쪽방 사업’은 예산의 출처에 따라 2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2013년 복지공동체기금으로 진행된 ‘새꿈하우스’와 2015년 이후 서울시와 현대엔지니어링의 쪽방주민 지원체결의 후원으로 진행된 건물은 ‘디딤돌프로젝트’ 협약의 이름을 따서 ‘디딤돌하우스’라고 명명되고 있다.

초창기 복지공동체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새꿈하우스’는 주거비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목적이었기에 본인부담 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기본주거비 내에서 최소월세를 책정했다면, 후반기 디딤돌프로젝트로 진행된 ‘디딤돌하우스’는 2014년 10월부터 맞춤형 개별 급여 체계로 개편⁸⁾과 저렴쪽방을 운영하는 상담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는 ‘주거급여 선까지는 받아도 된다’라는 현실적인 기준으로 완화로 방의 크기와 환경상태에 따라 월세 폭을 다양화하여 거주민이 본인의 거주환경의 선택권을 제시함과 동시에 현재는 월세완화보다는 쪽방의 거주환경개선과 공동체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⁹⁾

2019년 4월 현재, 서울역, 남대문, 창신동의 3개 쪽방밀집지역에서 7개 건물이 저가쪽방의 형태로 운영 중이나, 노후화된 건물의 관리와 월세 체불 등으로 발생하는 운영의 어려움으로 서울역과 창신동 2개 건물이 폐쇄 절차를 밟고 있다.

8)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

9) 2019년 3월 4일 남대문쪽방상담소 정소장 인터뷰

[표 2-4] 저렴한쪽방 현황¹⁰⁾

구분	위치	건물구조	방 개수	편의시설				임대차 계약기간 (재계약 횟수)
				화장실	세면실 샤워실	주방	난방	
새꿈 하우스 1호	동자동 35-145	목조 2층	17개	개축2	신설1	싱크대3	보일러1	2013.06.00- 2016.06.03 (1회) 2016.06.03.- 2019.06.02
새꿈 하우스 2호	동자동 9-3 2동 2층 우	철근콘크리트 4층	7개	개축2	신설1	-	보일러1	2013.06.00- 2016.06.03 (1회) 2016.06.03.- 2019.06.02
	동자동 9-3 2동 2층 좌		8개	개축1	개축1	싱크대1	-	2017.08.11.- 2022.08.10
	동자동 9-3 2동 3층 우		8개	개축1	신설1	-	보일러1	2013.11.00- 2016.06.03 (1회) 2016.06.03.- 2019.06.02
새꿈 하우스 3호	동자동 19-69 1층	철근콘크리트 2층	8개	-	-	싱크대5	보일러8	2013.11.00- 2016.06.03 (1회) 2016.06.03.- 2019.06.02
새꿈 하우스 4호	동자동 9-20	철근콘크리트 4층	51개	개축8	신설5	싱크대2	전기판넬 온수기	2016.01.31 -2020.01.31
디딤돌 하우스 1호	창신동 436-27	벽돌조 4층	23개	신설4	신설3 세탁실	-	전기판넬 온수기	2015.10.30 -2020.10.30
디딤돌 하우스 2호	동자동 9-9	철근콘크리트 3층	19개	개축4	신설3	신설2	-	2016.04.30 -2021.04.30
디딤돌 하우스 3호	남대문로 5가 622-1	철근콘크리트 3층	37개	개축2 신설1	-	싱크대3	1,3층 전기판넬	2017.01.01 -2020.01.01

10) 서울시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제공문서

3) 저렴쪽방의 평가와 운영

저렴쪽방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는 ‘서울역 쪽방밀집지역은 저렴쪽방 임대 지원사업 주요 추진지역’(13.7월~현재) 지속적인 월세 인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¹¹⁾로 쪽방 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를 목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또한 상담소 관련실무자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저렴쪽방 사업은 “주변 쪽방의 주거환경의 개선의 초석을 역할을 했다”¹²⁾라는 거주환경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 있음’이라는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 자활지원과 연구보고서 「쪽방, 쪽방촌, 쪽방상담소」에서 밝힌바와 같이 ‘건물주와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사업으로 개선된 주거환경으로 인해 월세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위험요인을 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건축물 노후화로 인한 관리비 증가와, “일반 쪽방 집주인처럼 나가라 달달 볶을 수도 없는거고...” 라는 거주자들의 월세 체납 등으로 인한 동대문 디딤돌하우스1호 운영중단 결정과 “상담소가 관리하는 건물이라며 아껴쓰지 않아, 전기세만 500~600만 원/월이 나온다”, “건물주에게 시설보수를 요청했지만, ‘내가 왜 고쳐야하나?’ 며 오히려 묻는다”, “사적재산이라 건축물 보수를 위한 근본적인 투자를 할 수 없다” 등의 쪽방상담소는 운영의 어려움을 안고 있었고, 이는 7개의 저렴쪽방 건물 중 2개의 건물이 폐쇄과정을 밟고 있음을 통해 저렴쪽방 사업은 긍정적인 측면만 가지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남대문디딤돌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남대문쪽방상담소는 디딤돌하우스를 복지시설 일부로 등록하여 전기료산정방식을 변경하고 월세관리를 통해 2018년에는 흑자로 돌아섰다고 한다. 디딤돌하우스 운영으로 생긴 이익금은 디딤돌하우스 거주민이 추후 임대주택으로 입주 시 가전제품 등을 구입 할 수 있는 지원을 할 예정이라 함에 저렴쪽방을 운영하고 있는 상담소의 운영의 어려움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준다.

11) 서울시 자활지원과 내부자료, 2017년 지원사업계획부분 평가

12) 2019년 2월 13일 서울역쪽방상담소 전실장 인터뷰

03. 저렴한쪽방 디딤돌하우스 연구

저렴쪽방이라고 불리는 건물 중 ‘디딤돌하우스’는 종로구 창신동 436-27(종로50가길 13-1), 용산구 동자동 9-9(후암로57길 9-8), 중구 남대문로5가 622-1(후암로60길 16-17) 3채의 건물이다. 각각 2015년 12월, 2016년 6월, 2017년 7월 개소하였다. 앞에서 언급 했듯, 저렴한쪽방 건물은 예산의 출처에 따라 2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디딤돌하우스는 2015년 이후 서울시와 현대엔지니어링의 쪽방주민지원체결의 후원금으로 리모델링이 진행된 건물로 ‘디딤돌프로젝트’ 협약의 이름을 따서 ‘디딤돌하우스’라고 명명되고 있다. 시기적으로도 주거비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목적이었던 초창기 목표에 복지공동체 사업의 ‘새꿈하우스’ 뒤에 진행된 디딤돌프로젝트의 ‘디딤돌하우스’는 월세완화보다는 쪽방의 거주환경개선과 공동체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울시 쪽방 지원사업을 담당했던 서울시 담당자에게 ‘디딤돌하우스 관련하여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싶은데 어떠한 절차를 걸쳐야 하나?’라는 질문에 대해 ‘쪽방상당소에게 먼저 협조를 구하라’는 답변을 받아, 사전에 쪽방상당소와 약속을 잡고 2019년 2월13일 서울역 쪽방상당소 - 전실장, 3월 4일 남대문 쪽방상당소 - 정소장, 창신동 쪽방상당소 - 유실장을 직접 찾아뵙고 현장조사 및 거주민 인터뷰 협조를 구하였다. 서울역 쪽방상당소와 남대문 쪽방상당소에서는 허락을 받아 현장조사가 진행되었고, 창신동 쪽방상당소는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과 관련 운영비 증가 및 월세체납 등으로 인한 저렴한쪽방의 운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상당소 내부에서 디딤돌하우스 폐쇄결정을 하였고, 폐쇄결정에 대해 서울시 동의를 완료된 상태이며, 사업비를 지원한 현대엔지니어링의 동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음¹³⁾에 현장조사 협조에 대해 거절 의사를 밝혔고, 이에 창신동 디딤돌하우스는 현장조사를 진행하지 못함에 창신동 디딤돌하우스는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13) 2019년 3월 4일 창신동쪽방상당소 유실장 인터뷰

진행된 모든 현장조사는 사전에 상담소에 일정공유 후 거주민에게 전달되도록 하였고, 현장방문 시에는 담당자에게 디딤돌하우스 입·출입 보고를 했고, 현장에 투입된 연구원들은 책임연구자에게 오전 오후에 나누어 현장조사 진행사항을 보고하였다. 이는 주민들의 생활 안에 들어감에 대한 연구자의 최소한 예의이자 반면 낯선 현장에 투입되어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원들의 안전을 위한 장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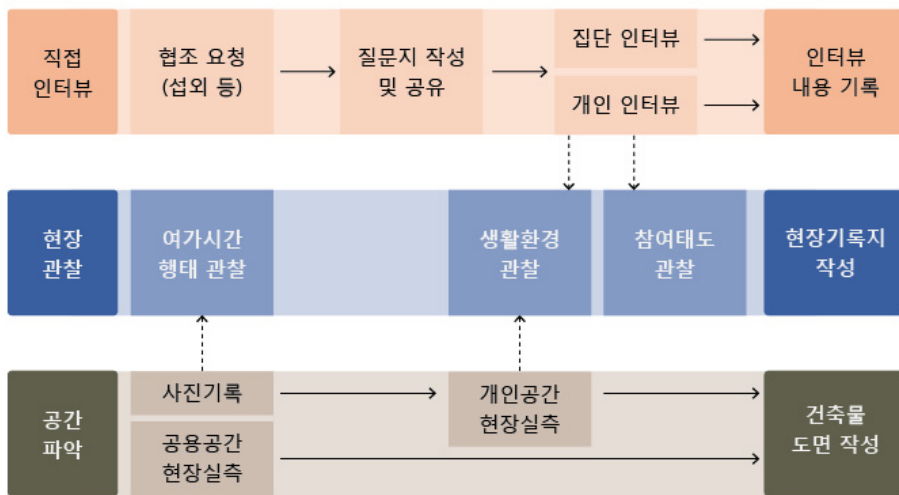
현장조사는 건축물 실측, 거주민 인터뷰, 현장기록 3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건축물 실측 작업은 건축물의 공간구조와 공용공간의 위치 및 크기를 파악하기 위함이었으나, 실측을 하고 있는 연구원에게 몇몇의 거주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현상이 발생함에 이와 더불어 외부인인 연구원을 대하는 거주민들의 반응을 살피게 되었다. 현장 실측의 결과물은 도면화 작업을 진행하였고, 공용공간의 구조의 파악이 목적이었기에 공용공간외의 공간 즉, 개인의 방에 대한 크기는 실측하지 않았으며, 복도에서나 외부공간에서 참고할 수 있는 것을 바탕으로 도면은 완성되었다. 개인 방에 대해 일부 표시된 치수는 연구원의 실측에 관심을 가지고 방 문을 열어 준 거주민의 방 공간에 대해서만 치수가 표시되어 있다. 인터뷰에 응하였다하여 방 문을 열어 개인의 방을 실측할 수 있게 해주거나, 방 문을 열어 주었다고 하여 인터뷰에 응한 것이 아니기에, 인터뷰 대상자와 실측이 된 방의 주인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거주민 인터뷰는 쪽방상담소에 연구 관련 현장조사 협조를 구함과 동시에 디딤돌하우스 거주민 섭외를 부탁하였고, 인터뷰질문지도 인터뷰 진행 전 상담소와 공유하였다. ① 저립쪽방 디딤돌하우스의 목표이자 지향점인 '월세 인하 및 안정화(주거 안정화)'와 '공동체 형성'을 거주자들은 실감하고 있는가? ② 디딤돌하우스 내 공용공간은 거주민들의 마주침 - 대화 - 규칙 을 만들어내는 공간으로, 공동체형성의 최소 역할을 하고 있는가? ③ 저립쪽방 사업이 기존 '쪽방'과 '쪽방촌'으로만 바라봄의 관점에서 벗어나 생활공간인 '집'의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공동체형성의 기초단위로서 가능성 발견을 할 수 있는가? 라는 3가지 질문을 바탕으로 작성 된 질문지이며, 단답형 답변을 피하기 위하여, 현장에서는 인터뷰 질문지에 기입된 질문의 순서를 바꿔 진행거나, 질문의 내용을 쉬운 단어로 바꾸어 진행하는 등 거주민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초기에 책임연구자는 개인인터뷰를 기획하였으나, 거실 공간을 가진 서울역 디딤돌하우스에서는 개인인터

뷰 진행 중 자연스럽게 거주민들이 인터뷰에 관심을 가지고 모임에 따라 집단인터뷰와 개인인터뷰 복합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인터뷰에 투입된 3명의 연구원과 공간실측에 투입된 2명의 연구원은 현장조사 후 간단한 미팅을 통해 인터뷰 진행 사항 및 현장관찰 내용을 공유 하였다. 격식을 갖추지 않은 미팅으로 주관적일 수 있는 연구원의 의견까지도 자연스럽게 공유하길 책임연구자는 요구하였고, 책임연구자는 본인이 관찰한 내용과 함께 현장에 투입된 연구원들이 현장에서 관찰한 내용과 거주민들과 접촉하며 들었던 생각들 그리고 느낀 감정들을 취합하여 현장기록지를 작성하였다.



[그림 3-1] 디딤돌하우스 현장조사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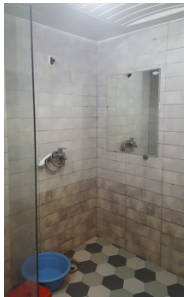
1_공간구조

저렴쪽방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물은 ‘새꿈하우스’와 ‘디딤돌하우스’로 불린다. 이는 사업지원금의 차이에 의해 만들어진 구분이지만 초창기에 만들어진 새꿈하우스와 달리 디딤돌하우스는 ‘공용공간’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건축물의 ‘공용공간’에 비교하면 ‘공용공간’이라 이름을 붙이기에 한참 부족한 최소한의 시설만 갖춘 ‘공용공간’도 있지만, 주변의 쪽방과는 차별된 공간이며, 서울역 디딤돌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거주민 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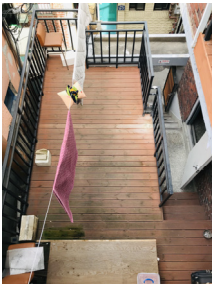
명이 둘러앉을 수 있을 만큼의 크기를 가진 ‘공용공간’인 ‘거실’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쪽방건물 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을 ‘공용공간’이라 정의하며, ‘거주민들이 공용공간을 사용하면서 그 공간에서 거주민들 간의 접촉이 이루어지며 이것이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공간계획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창신동 디딤돌하우스가 있는 창신동 쪽방 밀집지역은 주민들에게 세탁 및 샤워 등의 편의시설을 제공 해 줄 수 있는 쪽방상당소와의 위치가 멀고, 쪽방이 밀집되어 있는 마을 내에 주민이용시설이 있지 않았다. 반면 서울역 디딤돌하우스가 있는 동자동에는 여러 개의 주민이용시설과 가까운 거리에 쪽방상당소가 위치하고 있어 서울역 디딤돌하우스의 공용공간이 주변의 쪽방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었다. 그리하여 창신동의 디딤돌하우스 1층에 위치하고 있는 ‘공용공간’은 동대문 쪽방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열린 공간이나, 서울역 디딤돌하우스와 남대문의 디딤돌하우스의 공용공간은 거주민에게만 허락된 공간이다. 이처럼 디딤돌하우스의 공용공간은 동네의 환경에 따라 쪽방주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곳과 거주민만 사용가능한 곳으로 차이를 가지고 있다.

[표 3-1] 디딤돌하우스 공용공간

구분	공용공간		
디딤돌하우스1호 ¹⁴⁾ (종로구 종로50가길 15)			
	샤워실	싱크대, 세탁 공간	휴게실
	*동대문 쪽방주민 모두 사용가능 *세탁기 소음으로 인한 문제 있어, 세탁기 사용시간 제한		

14) 2017년 7월 25일, 〈서울시 주요 쪽방 밀집지역 지도 용역〉을 위해 현장답사 사진

디딤돌하우스2호 (용산구 후암로57길9-8)			
	공동거실	공동주방	테라스
	*디딤돌하우스 거주민만 사용가능		
디딤돌하우스3호 (중구 후암로 60길 16-15)			
	싱크대, 세탁 공간	샤워실	공동방
	*디딤돌하우스 거주민만 사용가능		

2015년 12월 개소한 창신동 디딤돌하우스는 벽돌조 4층 건물로 전면이 좁고 긴 형태의 건물이다. 1층에 공용 샤워실, 화장실, 세탁실 등 공용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1층의 공용 공간은 동대문 쪽방주민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으나, 세탁기 소음 등 거주민의 불편함 호소로 인해 공용공간 개방시간을 제한하고 있다.¹⁵⁾ 2~3층은 좁은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거주민들의 방 즉 쪽방으로 채워져 있으며, 복도를 중앙에 두고 양쪽 면에 방이 위치하고 있다. 좁고 긴 건물 형태로 인하여 복도 또한 좁아서 한 쪽방 방에서 문을 열게 되면 복도 폭을 모두 차지하게 되어 신발 두 짝을 줄지어 놓거나 상부에 선반을 만들어 보관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창신동 디딤돌하우스는 건축물의 노후화 및 저렴한쪽방을 운영하고 있는 상담소의 운영비 부담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폐쇄 절차를 밟고 있다.

15) 2017년 7월 25일, 〈서울시 주요 쪽방 밀집지역 지도 용역〉을 위해 현장방문, 동대문쪽방상담소 이실장 인터뷰



[그림 3-2] 창신동 디딤돌하우스 공간

2016년 6월에 개소한 서울역 디딤돌하우스는 철근콘크리트 3층 건물로 여인숙으로 사용된 건물을 임대하여 수리하였다. 2016년 리모델링 당시 여인숙의 주인이 거주하던 공간을 나눠 쪽방으로 만들지 않고 거주민 간 소통, 공동체 의식 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공동주방 및 거실로 리모델링하였으며, 외부테라스(데크) 등의 질 높은 공용공간¹⁶⁾을 가지고 있다. 서울역 디딤돌하우스의 공용공간은 거주민들에게만 개방되어 있으며, 2016년 테라스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 내 자원봉사팀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같은 해 공용공간인 거실에서는 거주민 스스로 본인의 주거환경을 가꾸는 프로그램으로 ‘인문학교실’의 거주민워크숍이 진행되었다. 당시 공용공간인 거실은 함께 모여앉아 의견을 나누는 공간으로서 기능을 하였으며, 그 외 테라스 및 복도와 계단 등도 디딤돌하우스 공용 생활공간으로서 인문학교실의 프로그램 대상지로 거주민이 의견을 제시하고 직접 가꾸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16) 오마이건설 뉴스 2016.06.30.일자

저렴쪽방의 하나인 서울역 디딤돌하우스의 월세는 같은 지역의 저렴쪽방 새꿈하우스에 비해 6~8만 원정도 비싸다. 이는 ‘조용하고 생활환경이 나은’, ‘공용공간이 있는’ 공간을 원했던 주민의 요구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4년 10월부터 맞춤형 개별급여 체제로 개편됨에 초장기 저렴주택이 추구했던 ‘저렴’보다는 ‘나은 환경’과 ‘공동체’ 초점을 맞춰 공간을 리모델링하게 되었고¹⁷⁾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 또한 주변의 쪽방보다 비싸지만 나은 거주환경을 원했던 사람들이 입주 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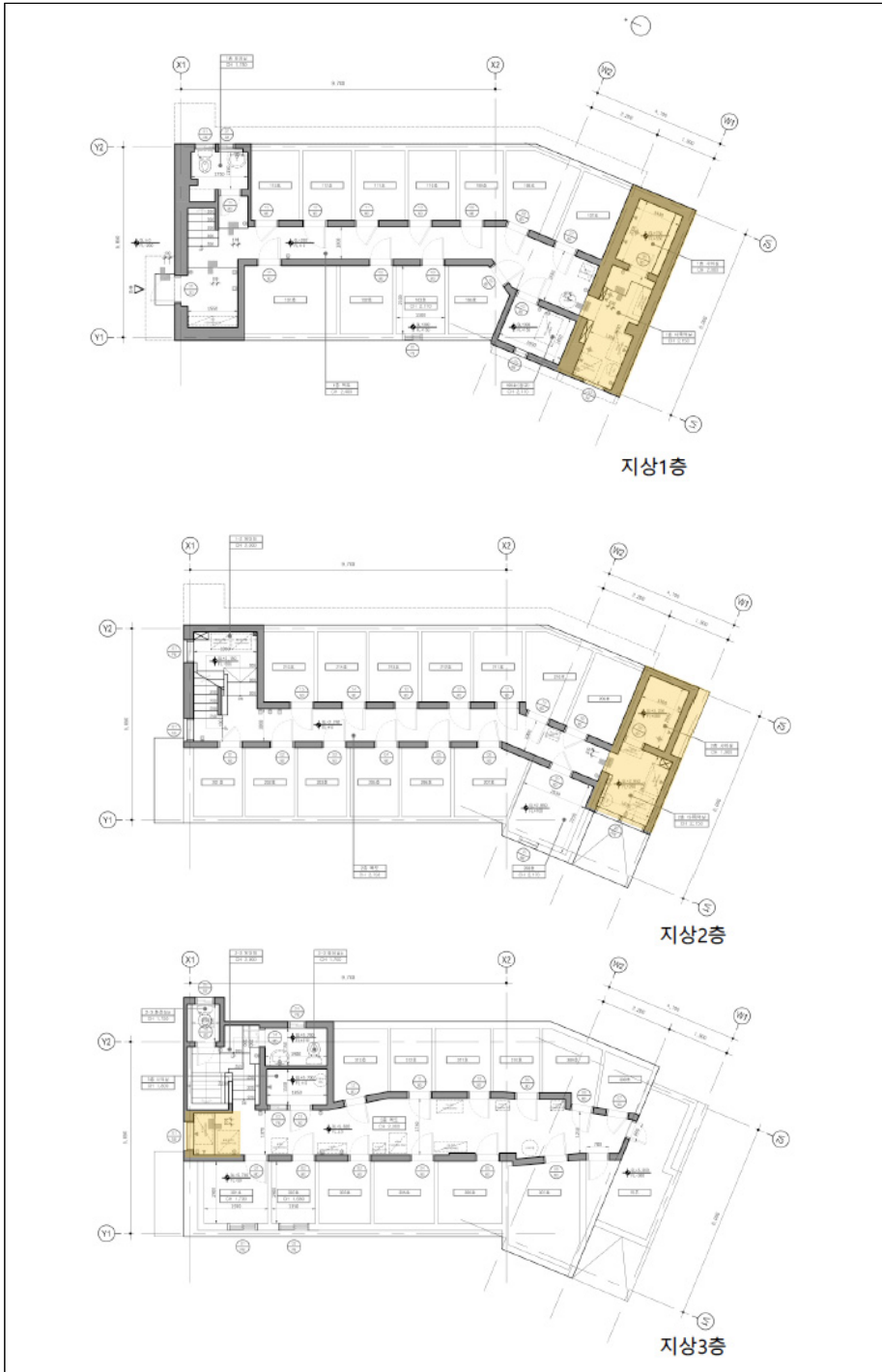


[그림 3-3] 서울역 디딤돌하우스 공간구조

17) 2016년 12월 19일, 서울역쪽방상담소 정소장 인터뷰

2017년 개소한 남대문 디딤돌하우스는 철근콘크리트 3층 건물로 리모델링 당시 거실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공용공간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아, 샤워실과 싱크대와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최소한의 공용공간을 만든 후, 2017년 여름 폭염으로 인하여 각층에 냉장고를 하나씩 배치하고, 임대하던 방을 층별로 하나씩 빼서 현재 공용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방을 하나씩 빼어 만든 공용공간은 구조상 닫힌 공간이다 보니, 현장조사 당시 물건을 쌓아두거나 빨래를 말리는 등의 창고이상의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남대문 디딤돌하우스 공용공간 또한 거주민에게만 개방되어 있다.¹⁸⁾

¹⁸⁾ 2019년 3월 4일 남대문쪽방상담소 정소장 인터뷰



[그림 3-4] 남대문 디딤돌하우스 공간구조

2_디딤돌하우스거주민 인터뷰

(1) 인터뷰 진행과정

디딤돌하우스 거주민 인터뷰는 지역의 쪽방상담소를 통한 거주민 사전 섭외를 시작으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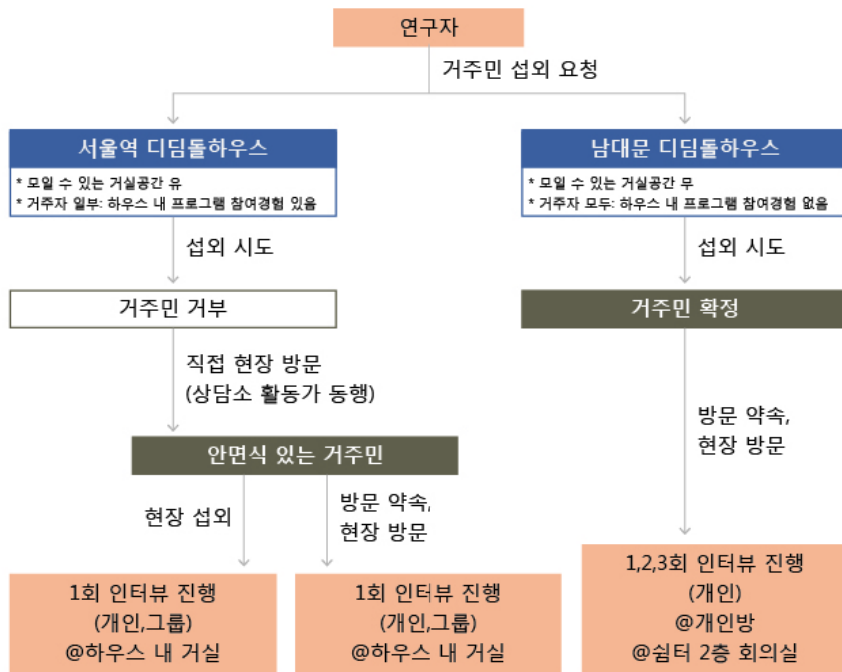
남대문 쪽방상담소를 통해 남대문디딤돌하우스 거주민 10명이 사전에 섭외되었고 그 중 1명은 병원 입원으로 대체 인터뷰 참여자가 선정, 그리고 인터뷰 당일 현장에서 1명의 거주민이 추가 섭외되었다. 상담소는 연구자가 제시한 인터뷰 계획표에 따라 거주민에게 배정된 시간을 안내하였고, 약속시간에 맞춰 연구원 2명 1조가 되어 디딤돌하우스 내 개인의 방을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3일 인터뷰 중 마지막 날은 책임연구자가 직접 인터뷰에 참여하지 못함에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연구원들의 안전 문제 등으로 인해 쪽방촌 내에 있는 사랑방건물 2층 회의실에서 개인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림 3-5] 남대문 디딤돌하우스 인터뷰

서울역 디딤돌하우스 거주민의 인터뷰는 남대문 인터뷰와 마찬가지로 서울역 쪽방상담소를 통해 섭외를 요청하였으나 거주민들이 인터뷰에 응하기를 거부하여 섭외가 어렵다

는 연락을 받고 책임연구자가 인터뷰 진행예정일인 당일 서울역쪽방상담소 전실장과 디딤돌하우스를 직접 방문하였다. 거주민 1명이 인터뷰에 응하기 시작하자 다른 거주민들도 관심을 보이거나 또는 궁금해 하며 1층 거실로 모여들었고 자연스럽게 그룹인터뷰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다. 인터뷰에 관심을 보이며 모여든 거주민 중에는 2016년 서울역 디딤돌하우스에서 책임연구자가 참여한 ‘인문학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거주민들도 있어, 서울역 디딤돌하우스 거주민 인터뷰는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책임연구자는 2016년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알게 된 거주민 몇몇의 언급하며 ‘오늘은 왜 안 보이시나?’라고 물었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들이 알려준 ‘일터로의 외출 및 동네 마실’ 등으로 당일 부재를 확인하였고, 그럼 토요일 오후 다시 디딤돌하우스를 찾아 ‘인터뷰를 진행해보겠다’라고 인터뷰 일정을 거주민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약속한 토요일 오후에 비가 많이 와, 약속시간보다 늦은 오후시간에 책임연구자 혼자 서울역 디딤돌하우스를 방문하여, 서울역 디딤돌하우스에서는 그룹인터뷰와 개인인터뷰로 2차례의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그림 3-6] 인터뷰진행과정

(2) 인터뷰 대상자

서울역 디딤돌하우스에서는 19개의 방이 있으며, 거주민은 모두 남성이다. 2019년 3월 18일과 23일 2차례에 걸쳐 7명의 거주민이 인터뷰에 응하였고, 서울역 디딤돌하우스 거주민이 모두 남성인 관계로 인터뷰 참여자 또한 모두 남성이다.

서울역 쪽방밀집지역에는 저렴쪽방의 하나인 새꿈하우스가 4채 먼저 생긴 지역이고, 현재의 디딤돌하우스도 공용공간의 욕구를 반영하여 만들어진 곳으로 새꿈하우스보다 월세가 조금 더 비싸고, 비싼 월세임에도 불구하고 디딤돌하우스에 입주를 희망하여 온 거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인터뷰 대상자 중에도 2016년 개소에 때부터 거주하기 했다고 하는 분이 7명 중 3명이며, 책임연구자가 인터뷰에 응했던 거주민을 통해 안부를 확인한 2명의 거주민 역시 2016년 개소 때 입주하여 현재 디딤돌하우스에 거주 중이다.

[표 3-2] 서울역 디딤돌하우스 인터뷰 참여자 기본정보

구분	성별	출생 년도	입실일 (거주기간)	수급 여부	인터뷰 날짜	인터뷰 형식
A	남	66년	18.12.20 (4개월)	수급	19.03.18	개인
B	남	64년	(1년 정도)	비수급	19.03.18	집단
C	남	48년	(3년 정도)	수급	19.03.18	집단
D	남	60년	16.08.00 (3년 6개월)	비수급	19.03.18	집단
E	남	62년	17.06.05 (1년 9개월)	수급	19.03.18	집단, 개인
F	남	60년	17.03.00 (2년1개월)	수급	19.03.23	개인
G	남	72년	16.08.00 (3년 6개월)	비수급	19.03.23	개인

2019년 3월 기준 남대문 디딤돌하우스에는 35개 방¹⁹⁾이 저렴쪽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남성 거주민 사이에 3명의 여성이 거주하고 있다.²⁰⁾ 남대문 디딤돌하우스 거주민의 구성은 서울역 디딤돌하우스에 비해 노숙경험과 수급자 비율이 높으며, 서울역 다시서기희망지원센터 등 관련기관을 통해 긴급지원으로 입주하는 거주민 비율도 높은 편이다.²¹⁾

19) 초기에는 39개의 방을 임대하였으나, 공용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각 층마다 1개의 방을 빼어 현재는 35개방만 임대하고 있다.

20) 남대문 쪽방상담소 제공 자료

2명 여성거주민과 9명의 남성거주민 즉, 11명이 인터뷰에 참여하였고, 함께 둘러앉을 수 있는 공간의 부재로 거주민 개인 방과 쪽방촌 내에 있는 사랑방 회의실을 이용하여 2019년 3월 25일, 26일, 27일 3일에 걸쳐 개인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표 3-3] 남대문 디딤돌하우스 인터뷰 참여자 기본정보

구분	성별	출생 년도	입실일 (거주기간)	수급 여부	인터뷰 날짜	인터뷰 형식
가	남	56년	18.01.09 (1년 2개월)	수급	19.03.25	개인
나	남	38년	18.06.20 (9개월)	수급	19.03.25	개인
다	남	60년	-	수급	19.03.25	개인
라	남	44년	17.11.23 (1년 4개월)	수급	19.03.26	개인
마	여	54년	18.08.13 (7개월)	수급	19.03.26	개인
바	남	62년	(2개월)	수급	19.03.26	개인
사	남	47년	17.11.10 (1년 4개월)	비수급	19.03.26	개인
아	남	70년	17.11.00 (1년 4개월)	수급	19.03.27	개인
자	남	54년	17.12.01 (1년 3개월)	수급	19.03.27	개인
차	남	62년	17.11.21 (1년 4개월)	조건부 수급	19.03.27	개인
카	여	70년	18.07.03 (9개월)	수급	19.03.27	개인

(3) 인터뷰 질문

연구자는 저렴쪽방 사업의 효과와 함께 디딤돌하우스의 ‘공용공간에서는 사회적 관계 또는 접촉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가설을 바탕으로 ① 저가쪽방 디딤돌하우스의 목표이자 지향점인 ‘월세 인하 및 안정화(주거 안정화)’와 ‘공동체 형성’을 거주자들은 실감하고 있는지? ② 디딤돌하우스 내 공용공간은 거주민들의 마주침 - 대화 - 규칙 을 만들어내는 공간으로, 공동체형성의 최소 역할을 하고 있는가? ③ 저렴쪽방 사업이 기존 ‘쪽방’과

21) 2019년 3월 4일 남대문 쪽방상담소 정소장 인터뷰

‘쪽방촌’으로만 바라봄의 관점에서 벗어나 생활공간인 ‘집’의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공동체형성의 기초단위로서 가능성 발견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연구자의 연구 질문 3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 인터뷰 질문을 작성하였다. 3가지 연구 질문에 따른 세부질문 외 연구 질문에 따른 답변을 해석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인터뷰를 자연스럽게 이끌 수 있는 질문으로 하루일과를 물었고, 이에 대한 인터뷰 내용은 연구 외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사용 후에는 안전하게 폐기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디딤돌하우스 거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는 공용공간이 생기면서 개별거주자로서가 아니라,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가 생겼는지를 찾기 위한 인터뷰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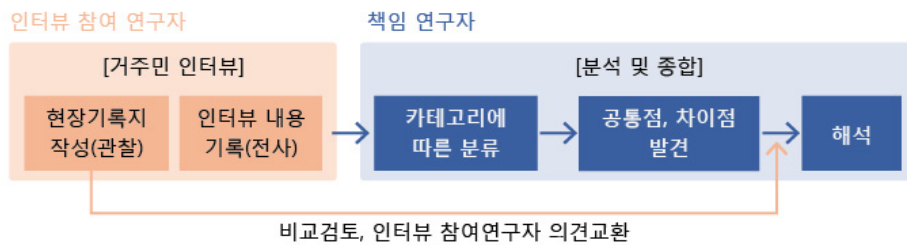
[표 3-4] 인터뷰질문

구분	질문내용
0. 개인정보	성함이? / 현재, 연세가? (몇 년 생인가요?) / 몇 호에 거주하시나요? / 현재, 하시고 있는 일이 있으신가요?
1. 입주경로	디딤돌하우스에는 어떻게 들어오셨나요? / 그 전에 거주하신 곳은요?
2. 거주기간	디딤돌하우스엔 언제 들어오셨나요?
3. 하루일과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 식사해요? / 식사 후에 무엇을 하세요? / 혼자 하시나요? 함께하는 이가 있나요? / 평일과 주말의 일과는 다른가요?
4. 차별성	그 전에 거주하신 곳과 다른 것이 있나요? / 주변의 쪽방과는 다른 것이 있나요? / 지금의 월세는 얼마인가요?
5. 공용공간 사용	자주 사용하시나요? / 규칙이 있나요? / 관리하는 누가 하나요? / 거실같은 공간이 생긴다면요?
6. 이웃과의 친분	핸드폰에 연락처가 몇 개나 있나요? / 동네에, 하우스 내 친한이가 있나요? / 옆방이의 이름 나이 등 알고 계신가요? / 식사는 혼자 하시나요?
7. 쪽방촌 내 활동	상담소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하던데, 참여하시는게 있으신가요? / 하고 싶은 취미생활이 있으신가요?

3_디딤돌하우스 조사 분석

1) 분석방법

인터뷰에 참여 했던 연구원 3명은 본인이 참여했던 모든 인터뷰 내용을 전사 공유하였다. 책임연구자는 전사된 인터뷰 내용을 인터뷰 ‘① 입주경로 ② 거주기간 ③ 일상생활 ④ 주변쪽방과의 차별성 ⑤ 공용공간 사용 ⑥ 이웃관계 ⑦ 쪽방촌 내 활동 ⑧ 그 외’ 8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였다. 분류된 내용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부분과 차별화되어 나타나는 내용들을 다시 선별하였으며, 차이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현장기록지와 비교 검토해 공용공간의 형태와 관련 프로그램 경험 유무와 연계하여 살펴보았다. 인터뷰를 통해 발견 된 내용들은 기존의 연구 등과 비교해가며 추론 및 해석하는 과정을 거쳐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그림 3-기] 인터뷰 분석과정

2) 분석내용

책임연구자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쪽방상담소를 통한 디딤돌하우스 거주민 인터뷰 섭외가 거주민들의 거부로 인하여 제대로 진행되지 않음에 책임연구자가 직접 하우스 방문을 통해 거주민을 섭외하게 됨으로써, 약 3년 전인 2016년 10월부터 12월 약 3개월에 걸쳐 디딤돌하우스거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프로그램으로 라포가 형성되었던 거주민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으로 인해 거주민을 통한 ‘추가인터뷰 공지와 전달’라는 즉흥적인 실험을 시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책임연구자가 이 연구의 인터뷰 참여자이자 2016년 프로그램의 참여자였던 거주민들에게 그동안의 안부와 2016년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했던 거주민들의 안부를 묻고, 거주민들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이웃에 대한 안부를 전함으로 인해 이 연구를 위한 거주민 인터뷰는 디딤돌하우스 거주민과 거주 공간

내에서 진행되었던 2016년의 인문학교실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과 추억을 되새김질 역할을 함으로써 희미하게 남아있던 공동체를 수면위로 끌어 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는 연구자에게 서울역 디딤돌하우스와 남대문 디딤돌하우스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였고, 남대문 디딤돌 하우스와 공용공간에 대한 의견이 상이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5] 서울역 디딤돌하우스와 남대문디딤돌하우스의 인터뷰 분석 요약

서울역 디딤돌하우스	구분	남대문 디딤돌하우스
주변쪽방보다 환경이 좋다고 해서 상담소가 관리하는 건물이라고 해서	1. 입주경로	병원, 다시서기 지원센터 등 복지사병원, 다시서기 지원센터 등 복지사의 추천
2016년 6월 개소, 장기 거주자 다수	2. 거주기간	2017년 2월 입주자 적극 모집, 1년~1년6개월
- 자활, 공공근로, 일용직 > 조건부 수급, 수급 - 평일 : 남산, 새꿈 놀이터 산책, 자활 및 공 공근로, 후암시장 물품구매, 서울역 마트 아 이쇼핑, TV시청, 동자동사랑방 방문 - 주말 : 교회활동 / 평일과 주말 개념 없음	3. 일상생활	- 자활, 공공근로, 일용직 < 조건부 수급, 수급 - 평일 : 남산, 서울역, 남대문시장 산책, 경로당 방문, TV시청, 방 청소 - 주말 : 1~2시간 교회 활동 / 평일과 주말 개념 없음
- 예전에는 상담소가 관리하는 건물이라 담 당자가 자주 들락거리고 하나라도 더 챙겨 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불만 - 공간은 잘 되어 있다. 주변에서 가장 좋다. - 술 먹고 난리 치는 놈 있으면 우리가 쫓아내 서, 지금 문제 일으키는 사람은 없다.	4. 주변쪽방과의 차별성	- 상담소가 관리한다고 들었다. - 복지사가 매일 와서 확인한다. - 조용해서 좋다. - 방은 작은 편이다. - 따뜻한 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
- 주방에서 요리를 해서, 방에서 먹는다 - 거실 공간은 초기에 상담소에서 하는 프로 그램 운영으로 사용되었으나, 지금은 잘 사 용하지 않는다. - 요리할 때 거실 TV 켜 놓고 했는데, 유선선이 끊겨 지금은 요리만 해서 방으로 들어간다. - 쓰다보니 불편해서 저절로 관리하게 되었다. - 안내문구는 우리가 상담소가서 출력 해 달 라고 해서 붙였다. - 있는 건 좋다. 외부 사람(연구자)이 와서 이 아기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지만, 있다는 것만으로 좋은 거다.	5. 공용공간 사용	- 공용냉장고가 있는데, 잘 사용하지 않는다. 싸움 등이 발생할 것 같아 조심한다. -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술판이 벌어질까 걱정도 된다.

서울역 디딤돌하우스	구분	남대문 디딤돌하우스
- 우리끼리는 친하다. - 오래 계신 형님들이 있어서, 많이 물어본다.	6. 이웃관계	- 과거와 개인정보는 묻지 않는다. 김씨, 형님 정도로 인사만 한다. - 서로 부딪히지 않는게 좋다.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
-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 말이 통하는 사람이 없다.	7. 쪽방촌 내 활동	
- 쌀, 반찬, 라면 지원 등은 충분하다. - 외부활동 등의 비용으로 쓸 만큼 여유는 없다.		

(1) 상담소가 관리하는 쪽방

‘이 곳을 디딤돌하우스라고 부르는데’라는 연구원의 ‘다른 쪽방과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남대문 디딤돌하우스 인터뷰 참여자의 대부분은 ‘이름은 잘 모르겠고’, ‘상담소가 관리하는 건물이다’라는 답변에 이어 ‘복지사가 자주 들여다보며’, ‘3번의 경고를 어기면 쫓겨난다’라는 규칙들을 언급하였다. 서울역 디딤돌하우스 인터뷰 참여자들도 ‘예전만큼 자주 들여다보지 않는다, 안 챙긴다’라는 불만을 표했지만, 그 아래에는 ‘상담소와 관리하는 건물’이며, 그동안의 다른 쪽방거주민보다 더 받아왔던 혜택에 대한 언급이 깔려있었다.

사회복지 관련기관에서 활동하여 쪽방관련 정보를 다른 거주민보다 조금 더 가까이 접할 수 있었던 서울역 디딤돌하우스 인터뷰 참여자 중 한명은 그동안 상담소가 관리하는 건물이며서 편하게 지냈는데, ‘상담소와 건축주의 계약기관이 곧 만료되지 않냐’며 ‘이 주변에 디딤돌하우스만큼 환경이 좋은 곳이 없는데’라는 걱정을 표했다. 그리고 실측에 참여했던 연구원은 건축물 실측을 하는 동안 거주민 중 몇 분이 주변의 재개발에 대해 물었으며 ‘디딤돌하우스 역시 그 바운더리 안에 있지 않냐’며 쫓겨남에 대해 걱정을 표했다는 내용을 연구원들과의 회의 시간에 공유했다.

(2) 이웃 _다툼 유발자

‘부딪히지 않는 게 좋고’, ‘여기엔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로 표현되는 ‘이웃’에게 서로의 과거와 개인정보를 묻지 않는 게 예의이다. 이들은 서로를 이름이 아닌 ‘김씨’ 정도의 호칭으로 뭉뚱그려 부른다. ‘형님’이라고 부르지만, 그가 나보다 아래인지 위인지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 과거에 대해서는 서로 묻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했다. 괜히 물어 ‘싸움’이 날 수 있으니 피한다고 했다.

산책도 혼자 다닌다. ‘함께’해서 생길 문제들을 만들기 싫다고 했다. 모이면 술만 먹는 게 이웃이고, 허구헛날 싸우는 게 이웃이라 했다. 나의 이웃과 나는 다르고 싶고, 문제 많은 쪽방주민으로 내가 보이는 것이 싫기에 더욱 그들과 분리되고 싶어 했다. 같은 공간인 디딤돌하우스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 또한 쪽방주민이기 때문에 이들과의 관계도 ‘인사’ 정도이며, 이웃에 의한 불편함은 참거나 상담소에서 나온 사회복지사를 통한 의사 전달이 ‘안전’하더라고 했다.

(3) 하우스 그리고 공용공간

‘○○호가 제일 먼저 씻어, 그 사람이 나오는 소리가 들리면 내가 씻으러 나가’ 하우스 안에는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는 애씀이 관찰되었다. 누군가가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다가가 말을 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 안에서 그가 그 공간을 떠나기를 개인의 방에서 기다렸다가 그 공간을 떠난 것이 확인되면 사용한다고 했다. ‘공동주방에서 간단히 음식을 조리해서 방에 들어가 먹는다’ 공동주방 바로 옆에 넓은 거실이 있는 서울역 디딤돌하우스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하우스 내에 거실 같은 공간이 생기면 어때요?’, ‘거실이 필요한가요?’라고 묻는 질문에 ‘만들어 놓으면 좋겠지만’이라는 긍정적인 답변과 함께 ‘만들어 놓으면 틀림없이 술판이 벌어 질 것이다’라는 걱정도 표현하였다. ‘시끄러워 싫다’라는 답변도 그 만큼 많았다. 앞서 거주민이 생각하는 다툼 유발자인 이웃이 이 공간에서 소란을 피울 것이라는 예상을 먼저하고 있었다.

(4) 외부인, 외부사회

약속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인터뷰를 진행할 연구원들과 마주친 거주민은 샤워용품 을 뒤로 후다닥 숨기며 ‘연구원들이 오기 전에 깨끗하게 씻고 있으려 했는데’라며 쑥스러워 했다. 그 후 연구원들은 약속시간에 딱 맞춰 움직였고 연구원들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던 거주민들은 ‘연구원들을 만나기 위해 씻고, 방 청소를 해 두었으며, 깨끗한 옷을 입고 나왔다’라는 설레임의 표현을 하였다. 사전 공지된 계획표대로 인터뷰가 진행된 날 때문 디딤돌하우스 인터뷰를 담당하 3명의 연구원 모두의 경험이다.

‘상담소에서 진행하는 동회도 있고 하던데 참여하시나요?’라는 연구원의 물음에 ‘나는

경로당에 다니는 사람이다'는 답변이 나왔다. 답변 뒤에 따라온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표현 안에는 '나는 내 옆방에 있는 쪽방사람과 다르다'라는 의미와 '외부사회와 소통한다'라는 자부심이 들어있었다. '○○호도 그 경로당 나가신다던데요'라는 연구원의 대꾸에 '그렇 리 없다'라는 의외라는 표정이 답변으로 돌아왔다.

주로 산책을 하며 하루를 보낸다고 했다. '남대문 시장'을 가고 '롯데마트'를 간다.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좋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활기가 느껴진다'라고 하였다. 의자가 있고 주변 친구들이 있어 그들을 만나러 서울역에도 나가지만 '서울역에는 노숙자가 많아서 싫다'고 했다.

공간 실측에 참여했던 연구원은 '맥심커피 믹스를 거주민께서 타 주셨고', '누추하지만 방에 들어와 과일 좀 먹고 가라'는 대접도 받았다고 했다. 바깥사람에 대한 반가움과 공간실측을 해서 어떠한 이익에 돌아오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고 한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연구원의 감사표현에 '바깥'사람과 만나니 좋다', '궁금한 것 있으면 또 와도 된다'라며 외부인에 대한 경계심은 너무 쉽게 무너졌으며, '내가 너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말하는 건데'라고 시작된 사적인 이야기는 바로 옆방의 이웃에게는 말할 수 없지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연구원에게는 말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하였다.

3) 분석결과 및 시사점

(1) 상담소의 울타리

디딤돌하우스의 거주민에게 '디딤돌하우스는 ① 상담소가 관리하는 건물이자 ② 안전함과 함께 다른 쪽방보다는 조금 더 또는 조금 먼저 챙겨주는 혜택이 있는 쪽방이고, 이야야 한다'이라는 인식이 전반적이다.

쪽방을 대상으로 하는 논문들에서 언급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받는 것에 익숙하여, 자립에 대한 의지가 없다'와 맞닿아 있다고 판단된다. 쪽방이라는 공간을 벗어나 일상생활로의 진입을 희망하고 있는 이상, 안전한 공간과 혜택이 있는 공간에 대한 인식의 분리는

필요하다. 이는 쪽방주민 스스로가 지원의 대상화가 되지 않기 위해 인지해야 할 사항이기도 하다.

(2) 쪽방주민에게 이웃, 공동체의 의미

‘위급한 상황에’라는 질문에 ‘경찰서에’, ‘119’라는 답변이 나와, ‘배가 아파’라는 질문으로 바꾸어 보았지만, ‘그러면 병원가지’라는 답변과, 하우스 내에 ‘CCTV가 있어서, 나의 것을 누군가 가져가지 않는다’, ‘TV 소리가 시끄러워...경찰 부른다’라는 답변 등을 통해 거주민들에게는 나와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과 나와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보다 119나 경찰이 더 가까운 이웃이었다.

거주민들에게 ‘이웃’은 생활이나 행동 또는 공동의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 같이하는 집단으로서 정서적 유대를 공유하고 공동의 문제 등을 함께 해결 해 나가기 위한 ‘동반자’적 의미보다는 같은 공간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쪽방주민들에게 이웃은 옆방에 살던 옆집에 살던 ‘안 부딪히는 게 좋다’, ‘말이 안 통한다’,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 등으로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으로 간주되고 있었다.

쪽방주민이라는 이웃은 ‘나의 과거 또는 현실의 나와 의 마주함’이다. 이는 그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기를 결심하고 어렵게 노력하고 있는 지금의 나를 방해하는 장애요소이자 내가 처한 현실의 모습을 그리고 미래를 인지하게 하는 장치이기에 마주하는 것이 괴롭다.

공동체는 이웃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시작된다. 쪽방 주민들에게 공동체를 요구하기 전에 이웃에 대한 신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가 먼저 있어야한다. 나의 이웃이 나의 평화를 해치는 사람이 아님을 서로가 확인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며, 그 사이에는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쪽방주민이 아닌 ‘관계 촉진자’가 필요하다.

(3) 공용공간의 역할

디딤돌하우스 내 공용공간은 거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기능적인 역할은 하고 있으나, 공용공간을 기획했던 행정과 실무자의 의도와 연구자가 연구를 시작하게 된 가설처럼 공용공간은 거주민들의 접촉을 만들어 내고 사회적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공용공간에 대한 인식 또한 ‘있으면 좋으나, 술판이 벌어져 싸움이 날 수 있는’

위험요소를 가진 공간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공용공간을 중심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서울역 디딤돌하우스 거주민들은 과거에 적극적으로 사용되었던 공용공간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며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거주공간 내 공용공간은 거주민의 편의와 더 나은 거주환경을 위해 필요한 공간이다. 하지만 공용공간이 있다고 해서 사회적인 접촉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않으며, 공용공간을 통해 사회적 접촉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용공간을 사용한 프로그램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4) 고독과 외로움, 그리움과 동경

쪽방주민의 대부분은 1인 가구이다. 이웃에 대한 불신은 고립으로 이어진다. 외롭다. 사람이 그림다. 그리고 우울하다. 쪽방촌이라고 불리는 나의 생활권 안의 사람들은 마주하기 싫고, 쪽방촌 밖의 세상에 들어가고 싶지만, 동경의 대상일 뿐 그 세상에 참여할 수 없어 주변만 맴돌고 있다.

‘나는 노인정 나가는 사람이야’를 말하는 거주민과 ‘나는 이 연구자와 함께 프로젝트 했었다’라며 옆 거주민에게 설명하는 모습들에서 ‘나는 너희와 다르게 쪽방 밖의 사회와 소통하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보였다. 이는 ‘남대문 시장’과 함께 언급한 ‘삶의 활기’와 ‘롯데마트 가서 사람 구경한다’라는 쪽방 밖의 사회와 접촉과 소통을 원하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소결

김성근·류창수(2015)는 쪽방주민들이 고립감과 우울감에 빠지면서 사람들을 그리워하지만 ‘내 영역’에 들어오는 것은 기피하고, 이웃에게 무관심함에 대해, ‘받는 것’에 익숙해져버린 쪽방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상황을 돌파하거나 개선하려는 노력이 매우 부족하며, 이것은 돌봄과 나눔에 대해서도 익숙하지 못해짐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연구자의 질문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답변은 남대문 디딤돌하우스나 서울역 디딤돌하우스의 답변은 별반 다르지 않았으며, 연구자가 인터뷰를 통해 발견한 내용도 김성근·류창수(2015)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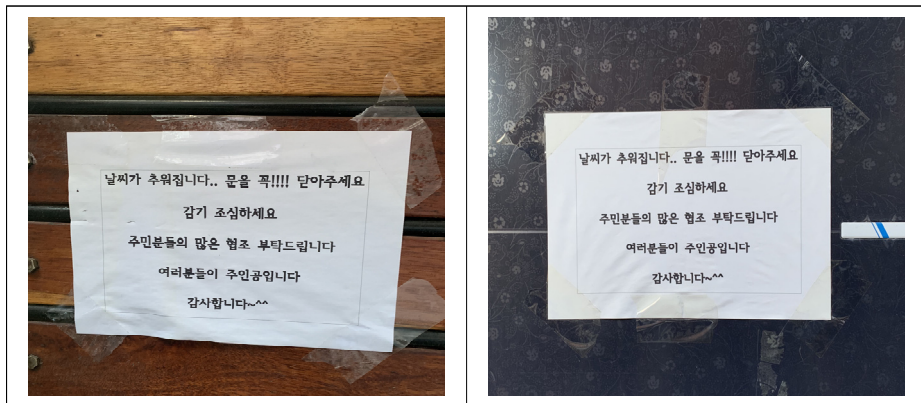
그러나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그런데’라고 하며 뒤에 덧붙여지는 답변에서나 ‘우리는 달라’라는 표현에서 두 하우스에서 나타나는 거주민들의 인식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표 3-6] 서울역 디딤돌하우스와 남대문디딤돌하우스의 환경에 따른 차이

서울역 디딤돌 하우스	구분	남대문디딤돌하우스
- 집단 인터뷰가 가능 :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인터뷰에 응하고 싶다는 관심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동참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김으로 : 우연히 참여한 집단인터뷰를 통해 안면식이 없었던 거주민끼리 인싸나눔의 기회가 됨	거실공간 유무	- 개인 인터뷰만 가능 : 관심 표현을 하는 거주민이 있었으나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못했음 : 연구자를 통한 인터뷰로 인하여 거주민끼리의 만남의 기회가 있었으나 함께 모여있을 공간이 없어 집단인터뷰로 확대 될 수 없었음
- 경험 등을 떠 올리며, 모일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긍정적 표현 - 참석 못한 거주민에게 연구자 메시지를 전달	프로그램 진행 유무	- 모일 수 있는 공간에 욕구는 있지만, 이웃에 대한 불신으로 걱정이 먼저
- 안부, 소식 / 희망, 욕구, 불만 등에 대해 솔직	인터뷰 자세	- 대부분 형식적, 공식적 답변 - 개인적 이야기 - 과거, 아픔, 가난함
- 느슨하지만 작은 공동체 존재 - 프로그램참여자 관계 유지(이름으로 언급) - 삶에 대한 희망적, 긍정적 표현 - 하우스 적극적 관리	차이점	- 주거공동체 형성에 대부분 부정적 - 이씨, 형님 등 익명성 추구 - 외로움, 고독함, 아픔 표현 - 상담소에 의존적

인터뷰에 응했던 디딤돌하우스 거주민 18명 모두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라는 대표된 표현으로 이웃에 대해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 이웃을 다툼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에 서로를 탐색하거나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간 마찰 등의 위험(Rick)에 대한 내적 부담도 가지고 있다. 이는 스스로를 더욱 고립하게 만들며, 외로움이 우울을 불러오고 있다. 그러나 남대문 디딤돌하우스와 서울역 디딤돌하우스 거주민들이 표현하는 이웃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인터뷰에 참여했던 남대문 디딤돌하우스 거주민의 대부분은 같은 건물 옆방에 사는 이웃에 대해서도 무관심이나 다른 이웃과 다른 부정한 이미지로 표현했지만, 서울역 디딤돌하우스 거주민은 디딤돌 하우스 내 이웃에 대해서는 ‘누구누구는 말이 통한다’ 등의 표현으로 했다. 어떠한 계기로 관계가 맺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같이 살며 자연스럽게’, ‘어떠한 활동을 하며’ 등으로 표현했으며 이들은 디딤돌하우스에

입주했던 초기 거주민을 중심으로 진행된 프로그램 등에서 만들어진 관계를 확대 해 가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상담소의 지원 및 관리가 소홀하다’라는 불만을 표함과 동시에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한다’라고 하며, 공용공간의 관리를 분담하여 하고 있다.



[그림 3-8] 서울역 디딤돌하우스 내 거주민이 작성한 안내문

쪽방주민이 이웃을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시선은 쪽방주민이 공간을 해석하는 것과도 연계됨을 발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 건물 안에서 ‘방’과 ‘방’ 사이의 공간 즉 복도, 거실 등 ‘공용공간’은 내부공간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쪽방주민 더 세밀하게는 디딤돌하우스 거주민에게 ‘방’은 ‘집’이고 한 공간 안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웃’은 ‘신뢰할 수 없는’, ‘부딪혀서 좋을 게 없는’ 사람이다 보니, 공간계획 이론들에서 이야기하는 ‘마주침이 발생하고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내는 공용공간’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공용공간을 경험했던 그리고 그 공간을 통한 프로그램에 참여 해 본 적이 있던 서울역 디딤돌하우스의 거주민 C,D,G는 남대문 디딤돌하우스의 거주자 대부분이 걱정했던 ‘공용공간이 생기면 술 판이 벌어질 것이며, 시끄럽고 지저분할 것이다’라는 걱정보다는 ‘있음 좋은 거다’, ‘만들어 놓으면 누군가는 관리한다’, ‘○○형님이 수도꼭지 같은 거 고치고, 내가 거실담당이다’라며 적극적으로 사회관계를 맺어가는 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편의공간 이상의 용도를 기대하고 있음을 발견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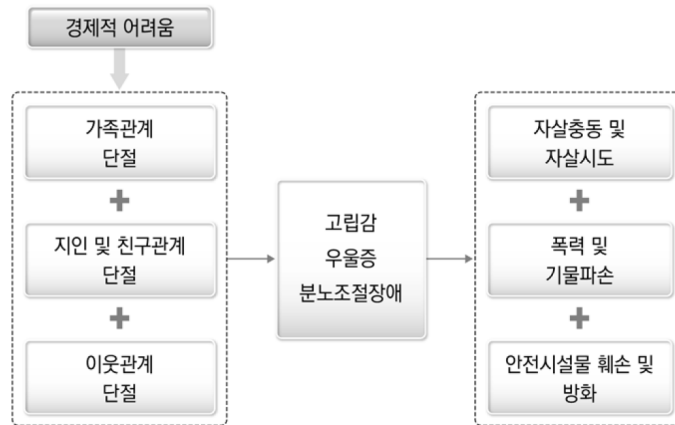
연구자는 쪽방상담소를 통한 서울역 디딤돌하우스 거주자 인터뷰 섭외를 위해 현장에 들어가게 된 계기로 인하여 우연히 생긴 기회로 연구자가 세운 ‘공용공간은 사회적 관계 또는 접촉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의 리트머스 종이가 되어 그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공용공간과 프로그램 등을 통해 그 공간의 사용을 경험한 쪽방거주민들은 공용공간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못했지만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 공간을 함께 사용했던 가까운 이웃인 디딤돌하우스 내 거주민과 프로그램으로 공용공간을 함께 경험한 연구자와의 ‘관계’를 기억하고 있었다. 이는 거주공간 내 공용공간을 중심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촉진자를 통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면, 쪽방 거주민들이 서로의 관계를 만들어감에 걱정하는 ‘다툼’등에 대한 리스크를 완화하는 촉진자는 범퍼역할을 할 수 있음에 이웃에 대한 불신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기대하게 한다.

04. 주거공동체를 통한 쪽방지원정책 고찰

쪽방의 주민들 대부분은 노숙생활을 탈피하여 정착하거나 단순일용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싼 거처를 찾아들어온 경우로, 쪽방은 경제적인 문제로 노숙으로 가기 바로 전 단계에 선택하는 마지막 거처이며 한편으로는 노숙인들이 일상생활로 진입하는 첫 번째 거처이기도 하다(김성근·류창수, 2015). 쪽방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대부분은 물리적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며, 현재 그들이 거처인 쪽방은 일상생활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쪽방 밖의 사회로 나갈 수 있는가 고립의 상태로 머물 것인가를 결정짓는 경계의 공간이기도 하다.

김성근·류창수 외(2015)는 서울역 쪽방촌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쪽방주민의 특성을 경제적 취약성과 사회적 취약성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노동력 상실과 생활고 등으로 인한 경제적 취약이 사회관계의 단절과 이어짐으로서 고립감 우울증 등을 유발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로 인해 많은 주민들은 분노조절 장애를 앓고 있으며 폭력, 방화, 자살 등 위험행위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에 자살이나 고독사 등 사회적 관계망이 가장 취약한 계층이 쪽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쪽방의 안전문제는 물리적 안전과 사회적 안정망을 함께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쪽방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단편적인 생활지원 프로그램 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 생활지원과 결합하여 거주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거 취약성을 개선하여야 하며 이는 쪽방에 거주하는 사회취약계층의 사회적 상황과 그들의 생활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해야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림 4-1] 사회적 취약성과 안전관계²²⁾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쪽방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들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며 쪽방의 거주환경과 거주민의 지원 프로그램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들은 안전함을 바탕으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자립을 경험하고 만들어 가기 보다는 대부분 쪽방 주민이 수혜의 대상이 되어 수동적인 모습을 취하게 만들었다. 쪽방이라는 공간이 도시 빈곤층이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전망의 역할을 하는 공간이 되어야 하겠지만, 혜택을 받기만 하는 스스로가 혜택의 대상화가 되도록 만드는 공간이 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1_자립을 위한 디딤돌로서의 주거공동체

이영아·정윤희는 (2012)는 ‘빈민에 관한 문제는 자칫 개인의 문제로 보일 수 있으나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문제임이 분명하며 빈곤은 하나의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이 중첩·결합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빈곤이 단순한 경제적 결핍이라는 단일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배제와 문화, 심리적 소외, 공간적 격리까지 결합한 다

22) <사회취약계층의 안전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p.47 [그림 4-2] 사회적 취약성과 안전관계

차원적인 문제임을 자각해야 함'을 언급한다. 이와 더불어 '쪽방촌은 그 중 공간적 격리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는 주거 형태로 이러한 단절은 거주자들에게 제한된 사회관계망, 고용이나 건강의 악화, 사회적 낙인 등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최근 연구에서는 빈곤이 공간적으로 집중된 지역에는 더 적극적인 정책적인 정책과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곽현근(2007)을 인용하고 있다.

이영범(2013)은 도시빈곤층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도시공공성과 도시인권에 기여하려는 노력이 부분적으로 시도되고는 있지만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마을 만들기는 대부분 진지한 고민 없이 유사한 프로그램의 수혜자로서 이들을 대상화하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마을 만들기는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으로 프로그램만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삶에 주목하고, 이들의 삶과 사회를 연결시키는 커뮤니티디자인을 통해 이들 삶의 보편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연구자는 그동안의 서울시 쪽방 지원정책들이 개인의 공간인 쪽'방'과 쪽방'촌'인 마을에 집중하고 있음이 쪽방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하였다. 저렴쪽방의 형태로 쪽방주민들에게 임대되고 있는 디딤돌하우스는 '집'이라는 공간을 가지고 접근함으로 인해 서울시가 지원하고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등에서 공동체 형성 부분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가능성을 가진 공간은 함께 생활하는 주거 내의 공용공간이라 생각하였다. 저렴쪽방의 초창기 모델인 새꿈하우스가 '저렴'에 초점을 맞춘 저렴형 쪽방 지원의 대표적인 사례라면, 디딤돌하우스는 '공용공간'이라는 것을 삽입하여 말 그대로 쪽방 주민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단순한 주거비 지원을 넘어서서 주거공동체를 통한 주거복지의 실현을 가능하게 만드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연구자가 쪽방에서 주거공동체를 강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1인 가구인 쪽방 주민들의 삶터에서 거주가치 향상을 통해 삶의 정주성을 강화하고 이웃과의 관계망을 넓히는데 주거공동체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힘을 밝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함이다. '마을공동체' 단위보다 작은 주'거공동체'에서 주거복지에 접근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개별적 관점에서 접근한 복지서비스라 아니라 거주하고 있는 생활환경공간 안에서

함께 사용하는 공간을 매개로 복지의 다른 영역들이 서로 통합되어 해결되거나 제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주민 스스로 거주지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일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공간 등의 관리와 규칙 만들기를 통해서 자활과 공동체성을 획득하는 일이다. 또한 이를 통해 만들어진 사회적 관계망은 스스로를 고립으로 이끌었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계기이자, 쪽방 밖의 사회로 진입하였을 때 사회구성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미리 연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줄 수 있다. 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거주가치를 향상시킬 때, 주체적 복지가 완성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제도나 정책에 기대지 않고 일상적 복지가 주거라는 생활 공간 단위에서 실천되는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자 쪽방주민이 자립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2_정책제안

이영범(2013)이 그동안 주거복지가 몇 개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늘리는 것을 의미했다면, 이제는 주택정책 자체를 복지와 권리의 시각에서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며²³⁾함을 언급했듯이 쪽방의 주거지원 정책은 단편적인 물리적 현상에서의 접근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삶에 주목할 수 있는, 이들의 삶과 사회를 연결시킬 수 있는 사회적 관점에서의 해석이 필요하다. 이들의 삶에 주목한다는 것은 삶 속에 녹아 있는 보편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와도 맞닿아 있다.

디딤돌하우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거주민끼리의 규칙인 ‘서울역 - “우리가 쫓아내서 술 먹고 깡판 치는 사람들 없어” 자의에 의해서든 ‘남대문 - 경고 3번시 퇴출’이라는 상담소의 규칙인 타의에 의해서든 ‘그들과 다른 삶’을 살기를 희망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과거의 자신이나 바깥의 그들과 다른 사람이 되고자 스스로를 더욱 고립시키거나 어느 정도의 기간을 통해 서로가 확인된 작은 공동체만을 허락하고 있다. 사람에 대한 그리움 및 1인 생활에 대한 외로움과 쪽방의

23) 이영범(2013),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동-서울시 쪽방촌 주거재생을 중심으로」 p.6

음주에서 벗어나 사회와 접촉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나, 개인적인 에너지를 투자하여 나의 이웃인 서로를 탐색하거나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마찰 등에 대한 리스트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고립에서 우울로 이어졌다. 또한 외부 사회에 대한 진입과 어울림에 대한 동경은 있었지만 쪽방에 거주하면서 사회생활과의 단절로 인하여 쪽방 밖의 사회와 접촉하는 방법을 잊어가고 있었으며, 그것은 쪽방을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조차도 갉아먹고 있었다. 이는 다시 고독과 외로움에 ‘그들’의 집단으로 들어가거나, 순간적인 일탈행위들로 후회와 자책으로 이어짐을 관찰 할 수 있다.

연구자는 앞선 조사들을 통해 디딤돌하우스 거주민 인터뷰 및 현장조사를 통해 연구자는 사회적 관계 확장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① 기본적인 삶의 질과 자연스러움 참여를 위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 필요 ② 이웃에 대한 선입견을 깨뜨리고 심리적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정교한 장치 및 구조가 필요함을 발견하였고 그에 따른 해결 방안으로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1) 물리적 지원을 넘은 사회적 지원

2018년 실태조사부분에 ‘귀하께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생활비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과 ‘쪽방상담소 서비스 중 가장 중요한 서비스는?’, ‘쪽방상담소 서비스 중 가장 부실한(보강되어야 할) 서비스는?’에 1위가 모두 ‘식품, 생필품 지원’이다.

인터뷰 중간 중간에 지원물품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었다. “여기 있으면 돈 없어도 산다”, “교회에서 주는 도시락 안 받아온다”. 인터뷰 진행 연구원에게 껌속말로 “여긴, 김치도 썩혀서 버려요”라며 여러 번 언급도 부족했는지 결국은 인터뷰를 끝내고 연구원의 손을 이끌고 밖에 버려진 아이스박스를 열어 확인시켜주었다. 그리고 현장에서 관찰하게 된 대용량 냉장고 안에 가득한 밀반찬과 그것들이 곰팡이와 함께 있었다는 것. 그리고 각 방마다 고추장 된장, 라면 등의 인스턴트 식품이 층층 쌓여있음은 식료품 지원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밥과 라면 보다 더 나은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몰랐던 것이고, ‘해 먹는게 귀찮고’, ‘해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라고 표현하고 있듯 배고픔과 끼니를 때우기 위한 방법이었지 먹는 것의 즐거움이 느낄 수가 없는 환경인 것이다. 인터뷰와 현장관찰 그리고 간간히 쪽방관련 사업들에 참여하면서 직간접으로 보며 판단하게 된 것은 쪽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물리적 지원은 현재 넘쳐난다’라는 판단과 실태조사에서 ‘더 지원’이라고 언급한 것은, 질의 부족함에 대한 그리고 비상시를 대

비해야한다는 심리적인부분에서 한번쯤은 봐라보아야 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넘쳐나는 물리적 지원이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다음 단계로의 지원으로 전환 되지 못하고 있다. 기본적인 물리적 지원이 안정화 되었다면, 이제는 물리적 지원에서 사회적 지원으로 넘어가야 하는 시점이자, 사회적 지원은 쪽방 거주민들의 생활에 좀 더 깊숙이 들어가 거주민 삶을 세밀하게 살펴보며 계획해야 한다.

2) 사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주거 그리고 안정화

쪽방주민들이 노숙인 ‘시설’이 아닌 ‘쪽방’을 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유’이다. 시설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들은 불면증을 달고 사는 주민들의 삶의 패턴과 부딪힌다. 물론 그 불면증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방법은 규칙적인 생활이라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개인의 생활 패턴에 적합한 생활규칙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공간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제한을 받고 있으며, 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 중 사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곳이 ‘쪽방’이다.

앞서 여러번 언급되었듯이 쪽방은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노숙으로 가기 바로 전 단계에 선택하는 마지막 거처이며 한편으로는 노숙인들이 일상생활로 진입하는 첫 번째 거처이며, 2017년 서울시 쪽방 밀집지역 건물실태 및 주민의견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노숙을 경험한 쪽방 거주민은 41.5%에 달한다.

박은철(2015)은 노숙생활 진입요인과 마찬가지로 노숙생활에서 탈출하는 데에는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임시주거비 지원은 탈노숙을 촉진하고 있으며, 노숙인의 심층면적조사결과 저렴주택 확보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숙인 복지시설 지원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에서도 탈노숙 및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주거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노숙인시설에서 거리·쪽방·고시원으로 옮기거나, 탈노숙에 성공한 이후에 다시 시설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재노숙의 원인은 노숙인 측면에서는 사생활을 보호받지 못하는 시설 입소보다 단독생활을 선호하기 때문이며, 시설측면에서 살펴보면 노숙인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서비스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양과 질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서울역 디딤돌하우스에서 스스로 집을 관리하는 느슨하지만 주거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가느다란 끈을 이어가는 중심에는 대부분 3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가진 거주민이자 일시적이었지만 주거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참여자이다. '상담소가 제대로 일을 안 해서 우리가 이런 것도 해야 한다'라는 불만을 표현했지만, 그들은 '내가 사용하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나 같은 바보들이 관리하는 거야'라며 스스로, 때로는 분담하여 해결하고 있다.

자립이라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공간에 대한 정주성이 먼저 보장되어야 한다. 주거의 안정화는 쫓박 거주민이 탈노숙을 촉진했던 장치였던 것만큼 다시 노숙으로 돌아가는 회전문을 차단²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지원이며, 자립을 만들어 내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지원이다.

3) 주거공동체를 위한 공용공간과 프로그램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 에리히 프롬(Erich Pinchas Fromm)은 '자유는 근대인에게 독립성과 합리성을 가져다주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개인을 고립시키고 그로 말미암아 개인을 불안하고 무력한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하며, 그 고립은 참기 어려운 것이며 개인이 고립에서 벗어나려면 자유라는 무거운 부담을 피해 다시 의존과 복종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인간의 독자성과 개인성을 바탕으로 둔 적극적인 자유를 완전히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자유를 갖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고독과 책임을 따른다. 홀로 하는 싸움, 더욱이 자신과의 싸움은 외롭다. 특히 유혹이 많은 환경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모두가 적으로 보일 수 있고, 더 움츠러 들 수밖에 없다. 이웃에 대한 두려움과 편견을 깨고, 같은 목적을 가진 이웃들과 서로 의지하며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각개전투가 아닌 안전한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관계가 필요하다. 나의 삶과 가장 가까운 그리고 공동체의 기본단위인 주거공동체부터의 시작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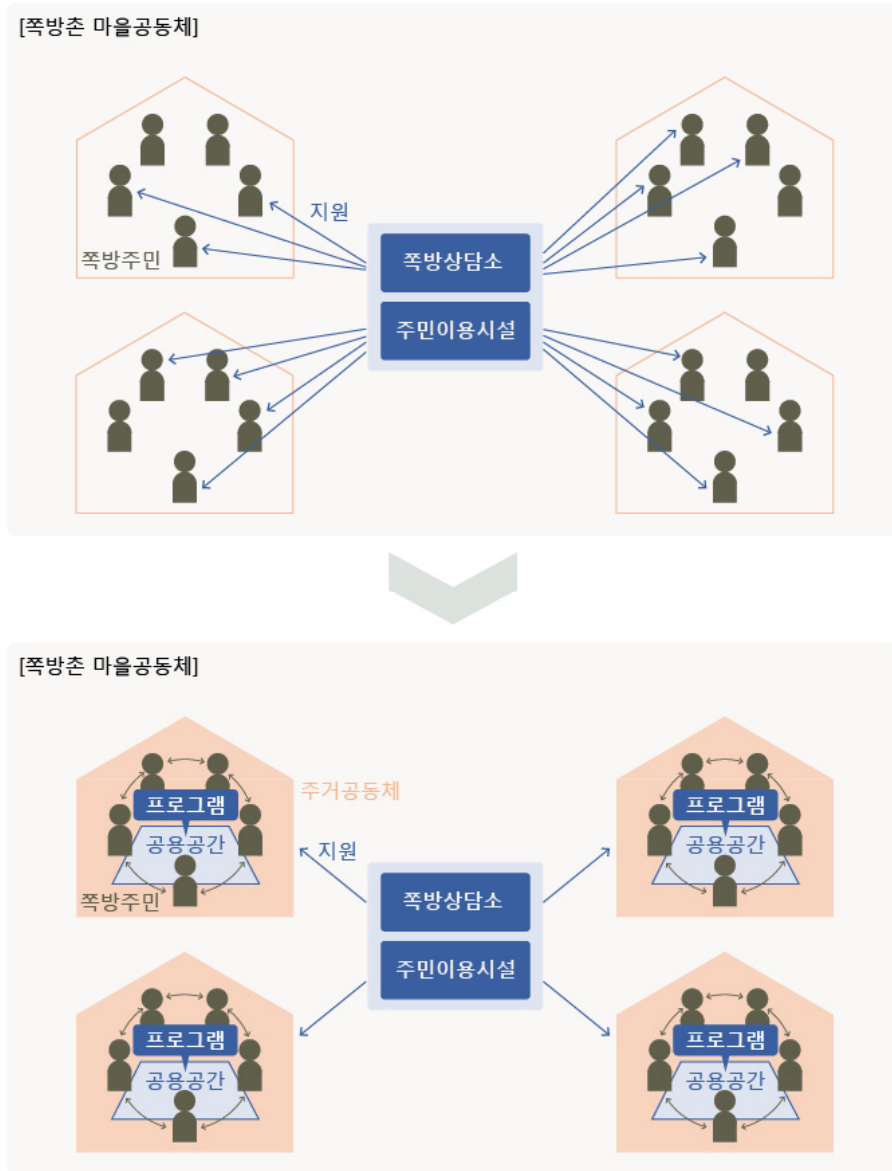
얀겔(Jan Gehl)이 『Life Between Buildings』에서 빌딩과 빌딩사이의 공간, 외부 공간

24) 박은철(2015), 『노숙 진입서 탈출까지 경로 분석과 정책과제』에서 노숙인들이 탈노숙을 했지만, 다시 노숙으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을 회전문현상이라고 표현했다.

등은 사람들은 마주침을 만들어 내고, 그 마주침은 다양한 경험들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 밝혀냈다. 안젤의 말을 밀리지 않더라도 공간계획서에서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공용공간’은 접촉과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내는 공동체의 장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쪽방주민이 이웃을 바라보는 관점은 공간을 해석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침을 인터뷰 분석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다. 쪽방 주민들에게 이웃이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갈 구성원이라는 신뢰가 생기기 전에는 자연스러운 접촉과 관계형성을 기대하기 힘들다. 쪽방거주민의 거주 공간 내에서 ‘방’과 ‘방’ 사이의 복도는 안젤(Jan Gehl)이 이야기 하는 ‘building’과 ‘building’ 거리만큼의 거리를 가지고 있었다.

현재 디딤돌하우스 내에 만들어져 있는 공용공간의 존재는 물론 열악하지만, 거주민에게 생활에 필수적인 편의를 제공함으로서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공용공간의 존재만으로는 ‘접촉’, ‘만남’이라는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내는 시발점을 만들어내고 있지 못했다. 오히려 마주침을 만들지 않으려 공용공간을 이용하기 전 그 공간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바깥소리’에 집중하고 있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내 이웃에 대한 ‘불신’으로 비롯됨이다.

거주공간에서 ‘공용공간’이 공동체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용공간을 중심으로 사회적 관계의 시작인 ‘만남’, ‘접촉’을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 프로그램은 거주의 공간에 속해 있음에 더욱 세밀해야 하며, 이웃에 대한 불신이 작동하고 있는 공간에서 작용해야 하므로 더욱 정교해야 할 것이며, 이웃에 대해 거리감을 좁힐 수 있는 안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관계 촉진자를 통한 시작으로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4-2] 디딤돌하우스 역할 모델

4) 세밀화된 사회적 관계망과 지지망 확대

박은철(2015)에 따르면 노숙생활의 탈출요인은 사회적 관계망 또는 지지망이 확대되면서 노숙생활에서 탈출하고 있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알코올·도박·게임중독, 만성 정신질환 등의 치료, 자활의지 및 욕구를 회복하면서 노숙탈피가 시작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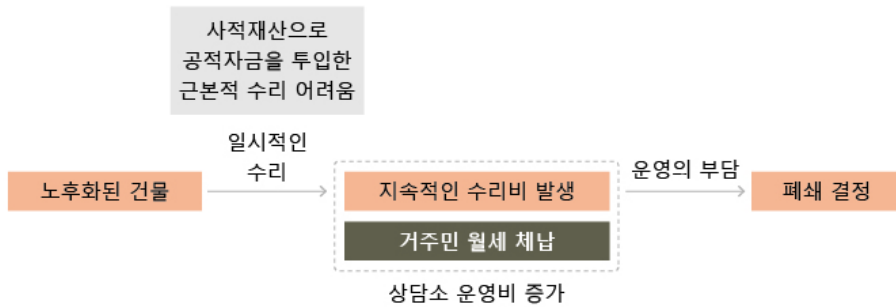
그리고 가족·친지관계의 회복, 생활기술의 획득, 사회생활의 적응, 부채문제의 해결 등이 결합되면서 노숙생활에서 탈출하고 있다. 사회적 요인으로는 공공부조 및 지원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면서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서를 지원 받은 경우가 많았으며, 주거를 유지하면서 지역 사회에 재진입하고 있었다. 이후 스스로 취업하며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노숙생활에서 탈출하고 있으며, 개인적·사회적 위기에 직면하였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나 조직이 없으며, 이는 다시 노숙생활에 진입으로 이어지고 있다.

쪽방 주민의 이웃과의 신뢰회복을 시작으로 만들어진 주거공동체로서의 경험은 쪽방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서의 진입과 복귀 후 ‘혼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여 쪽방의 탈출을 이뤄낸 이들은 일상생활 내에서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지지자이자 아직 쪽방을 탈출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희망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희망의 아이콘이 될 것이다.

연구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촘촘한 사회적 관계망은 쪽방촌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지자와 쪽방촌 밖의 공간에서 바깥세상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지지자의 양방향의 밀고 끌어줌이 필요함을 언급하고자 함이고, 좁게는 쪽방 탈출을 성공한 이전의 쪽방거주민과 넓게는 일상생활 안에 있는 사회의 대한 관심이다.

5) 운영주체의 운영부담 완화

디딤돌하우스 거주민 인터뷰를 통해서 표현되었듯이, 쪽방 거주민들은 쪽방 내의 공동체보다 쪽방 밖 사회와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 이는 쪽방의 이해관계자뿐 아니라 관련 시민단체, 전문가, 자원봉사가 등 사회구성원은 모두가 관심을 갖고 사회적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필요하며, 그러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쪽방 지원정책이 다양한 주체들이 쪽방 공동체에 관심을 갖고 다가설 수 있는 관계 형성의 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림 4-3] 운영주체의 운영부담

그러나 앞서 창신동 디딤돌하우스 폐쇄결정 사례를 통해 언급했듯이 거주민의 월세로 저렴쪽방의 모든 운영을 이끌어 가야함과 노후화된 건축물관리 등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거주민의 민원 등을 해결하는 활동가의 추가업무까지 쪽방상담소에게 모든 운영 부담이 주어짐으로 인하여, 쪽방상담소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주거 내 공용공간을 조성하거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할 계획은 고려해 볼 수조차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쪽방상담소의 의무로만 맡겨왔던 저렴쪽방 운영의 짐을 나눌 필요가 있으며, 이는 저렴쪽방이 확산 및 발전 확산 되는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자 쪽방상담소가 시달린 정책을 행하는데 급급한 소극적인 지원주체에서 쪽방 주민의 삶에 좀 더 밀착되어 세밀하고 정교한 지원을 계획하고 제안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주체로서의 기대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_결론

이 연구는 ‘공용공간은 사회적 관계 또는 접촉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건축 및 도시의 계획서의 일반적 이론을 가설로 시작되었다. 공동체의 최소단위라고 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바탕으로 ① 저렴쪽방 디딤돌하우스의 목표이자 지향점인 ‘월세 인하 및 안정화(주거 안정화)’와 ‘공동체 형성’을 거주자들은 실감하고 있는가? ② 디딤돌하우스 내 공용공간은 거주민들의 마주침 - 대화 - 규칙 을 만들어내는 공간으로, 공동체형성의 최소 역할을 하고 있는가? ③기존 ‘쪽방’과 ‘쪽방촌’으로만 바라봄에 있어 ‘개인(별)’의 관점에서만 접근, ‘집’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함으로써 공동체형성의 기초단위로

서의 가능성 발견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접근하였다. 연구 질문의 아래에는 생활공간 내 공용공간이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만들어진 생활공동체는 쪽방주민이 수동적인 대상에서 자립을 위한 능동적인 모습으로 바뀌 갈 수 있는 힘으로 작동할 것이라 기대하며, '집'이라는 공간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주거공동체에 대한 기대와 공동체의 힘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연구자의 관점이 밑바탕에 깔려있다.

위 연구질문에 대한 답은 디딤돌하우스 조사를 통해 발견된 현상으로 정리하려 한다.

현상 첫 번째는 '내 이웃에 대한 '신뢰 없음'은 각각의 쪽방 주민을 고립하게 만들었고, 그 고립은 외로움을 양성하고 있다'이다. 그 외로움은 우울로 이어졌으며 스스로를 더욱 무기력하게 만들었지만, 그 고민을 나누거나 의지할 이웃이 없다. 이웃을 만드는 것은 이들에게 너무나 큰 위험부담(risk)을 떠 앉는 것이며 '그 위험부담보다는 차라리 외로움이 안전하다'라고 쪽방 주민은 인식하고 있음이다.

두 번째는 건물 내 '방'과 '방'을 연결하는 '복도'는 쪽방 거주민에게 내부공간이 아니었다. 쪽방주민에게 '방'은 '집'이였고, 이는 이웃과 그 만큼의 단단한 벽을 만들고 있다. 거주민에게 건물 내 존재하는 공용공간 또한 내부공간으로 인식되지 못하였고, 공용공간은 단지 주변의 쪽방보다 삶은 조금 더 편하게 해 주는 시설이었다. 디딤돌 하우스 내 거주민들에게 하우스 안에 있는 존재하는 공용공간은 공간계획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 하는 사회적 관계 맺기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했다. 하지만, 쪽방주민들에게 공용공간은 조금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는데 충분히 필요한 공간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조금은 희망적인 것은 서울역 디딤돌하우스 프로그램 참여자이자 초창기부터 거주하고 있었던 거주민을 중심으로 발견된 몇몇 거주민의 관계 사이에서 흥미하게나마 주거 공동체의 희망과 그 관계가 주축이 되어 거주민으로서 주거를 직접 관리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연구자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을 정리 해 보자면 일반적인 건축 공간의 계획서에 등장하는 '공용공간은 사회적 관계 또는 접촉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한다'라는 이론적인 내용은 저렴쪽방 즉 연구의 대상이었던 디딤돌 하우스 내에서 쉽게 찾아보긴

어렵고, '만들어 놓으면 다툼의 야기하는 장소가 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기도 하지만, 디딤돌 하우스 거주민들에게 공용공간은 조금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는데 충분히 필요한 공간임에는 틀림없다. 서울역 디딤돌 하우스에서 발견 된 희미한 주거공동체에서 희망을 가능성을 발견하며, 이에 공용공간이 편의라는 물리적 기능과 함께 사회적 기능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사이에 있는 불신이라는 단단한 벽을 허물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 함께 작동해야 하며, 쪽방 거주민 사이에서 범퍼 역할을 할 수 있는 '관계 촉진자'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삶의 공간 내에서 이루어져함에 세밀함과 정교함을 요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가장 밑받침이 되어야 하는 것은 주거의 안정화가 뒷받침 되어야만 가능하다 할 수 있다 하겠다.

참고문헌

-국문논문-

- 곽현근, 2007, 「지역사회 사회자본에 미치는 동네효과에 관한 연구」, 11권 4호, pp.59~87, 지방정부연구
- 이영범, 2013,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동」, 국토연구원.
- 이영아·정윤희, 2012, 「빈곤지역 유형별 빈곤층 생활에 관한 연구」, 15권 1호, pp.61~74, 국토연구원.

-연구보고서 및 단행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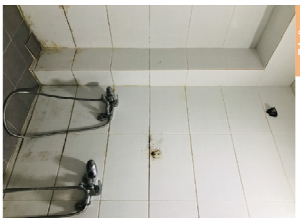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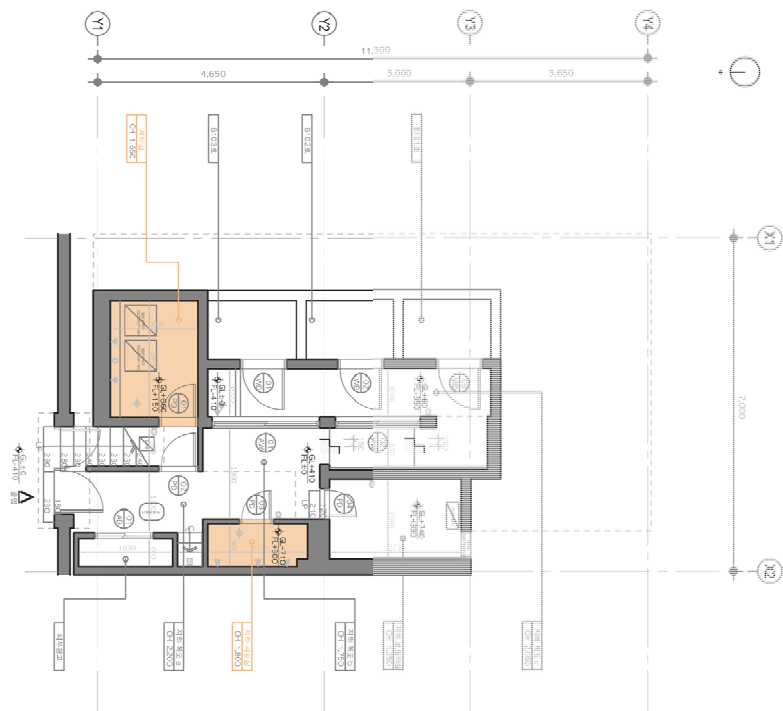
- 김동춘·노대명·장세훈·정건화·류정순·손병돈·허선, 2000, 「IMF이후 한국의 빈곤」, 나남출판
- 신명호, 2004,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본 빈곤층 실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서울특별시, 2013, 「영등포 쪽방촌 리모델링 시범사업 2012」
- 김성근·류창수, 2015, 「사회취약계층의 안전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박은철, 2015, 「노숙 진입서 탈출까지 경로 분석과 정책과제」, 서울연구원
- 이진우·기재일·이우승·나종택·최숙현, 2017, 「쪽방, 쪽방촌, 쪽방상담소」,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서울특별시, 2014~2018년 「서울시 쪽방 밀집지역 건물 및 주민의견 결과 보고서」
- 에리히프롬(Erich Pinchas Fromm), 2012, 「자유로부터의 도피」, 휴머니스트.
- 안겔(Jan Gehl)이 「Life Between Buildings」

<http://www.molit.go.kr/> (국토부)

<http://www.ohmycon.co.kr> (오마이건설 뉴스)

부록: 디딤돌하우스 공간구조

-서울역 디딤돌하우스 : 용산구 후암로57길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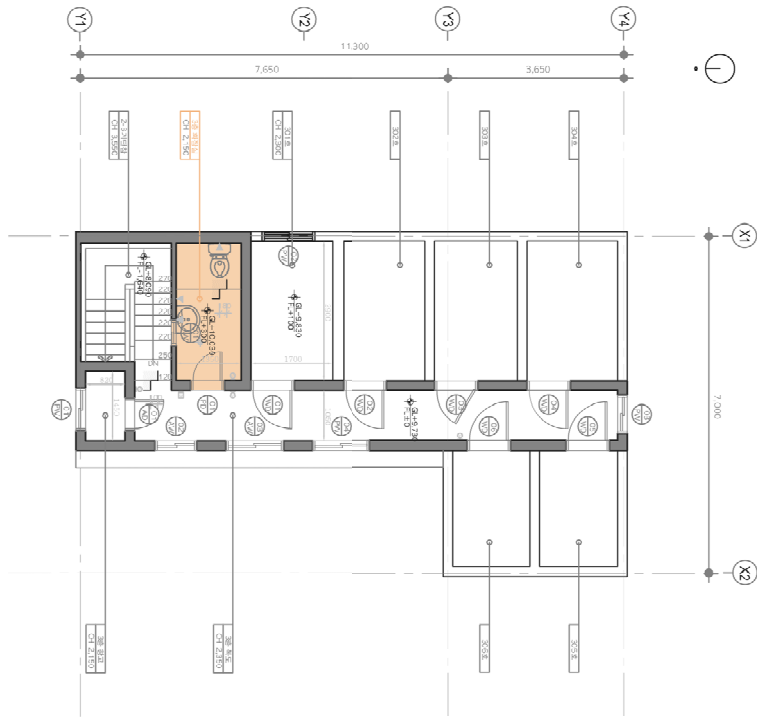


〈지하 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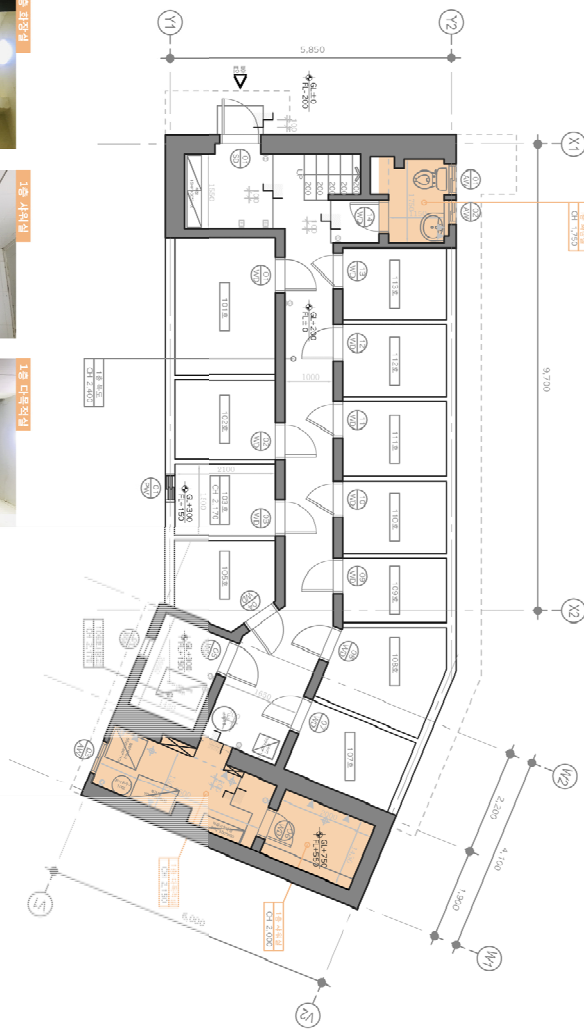


〈지상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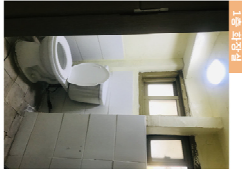


〈지상 3층〉

- 남대문 디딤돌하우스 : 중구 후암로60길 16-15



〈지상 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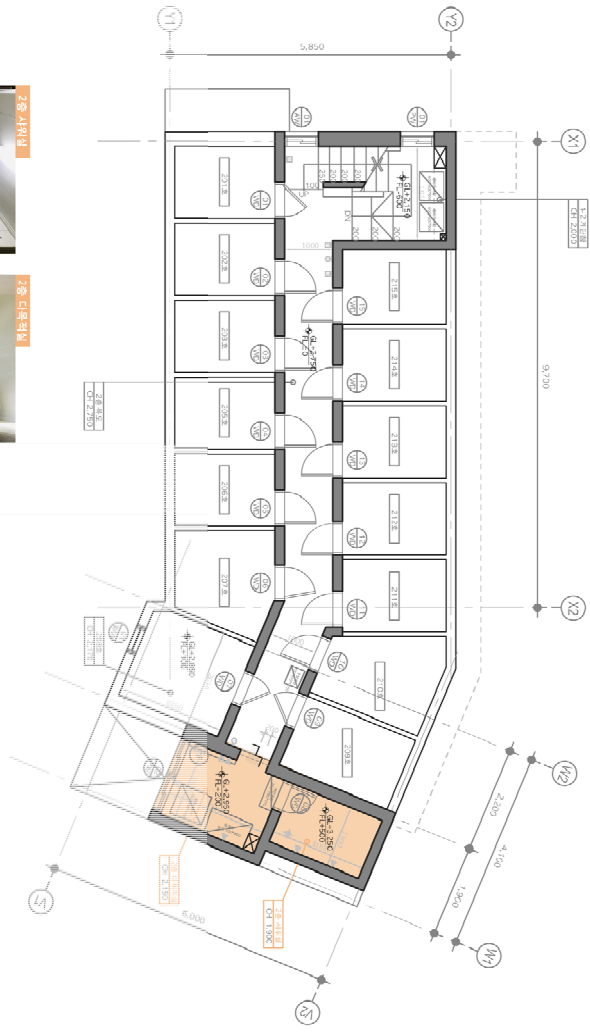
1층 화장실



1층 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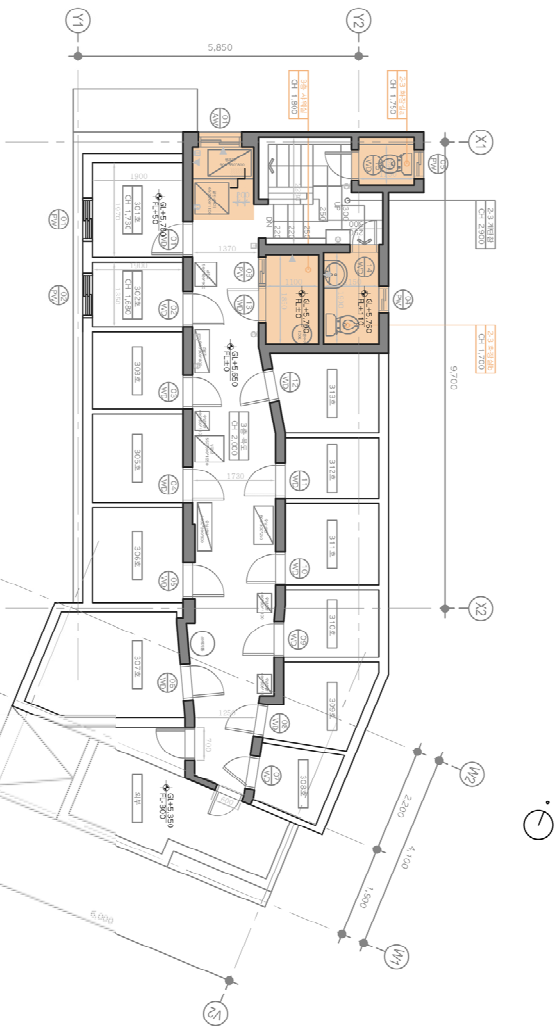


1층 대청방



〈지상 2층〉





〈지상 3층〉



인터뷰 요약

- 서울역 디딤돌하우스

서울역 디딤돌하우스_A		
1. 입주	입주경로	다니는 교회 목사님 내외의 추천
	과거주거형태	갈월동 쪽방
2. 거주기간		18년 12월 입주 (4개월)
3. 일상생활	하루일과	여의도한강공원/남산공원까지 걸어서 산책을 가기도 함
	식사방법	쌀은 주민센터에 신청해서 받고, 수급비로 반찬을 사서 방에서 혼자 식사함
4. 차별성	과거거주공간	- 예전 거주공간보다 조용 - 예전엔 방이 좁고 목욕시설이 없었음
	주변쪽방	
	월세	- 현재 23만 원 - 예전에 살던 곳은 7만 원
5. 공용공간	사용빈도	- 샤워실, 세탁실 자주 사용 - 옥상: 빨래 널을 때 사용 - 거실, 주방은 사용하지 않음. 들어와본 적도 없어서 구조를 모름
	관리, 규칙	- 화장실, 샤워실 청소는 누가하는지 모르고 해 본적 없음 - 출입규칙은 없음
	거실공간에 대한 생각	- 쪽방 주민 중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많음. 공동생활 하는데 서로가 많이 많아지면 싸움으로 발전 - 주방, 정수기 등은 필요
6. 이웃과의 친분	연락처 수	- 목사님과 가끔 연락
	쪽방촌 내 친한 이웃	-
	건물 내 친한 이웃	- 아는 사람 없음
7. 쪽방촌 내 활동	활동 참여	- 참여 안 함. 재미없음
	희망하는 취미생활	- 축구, 복싱 등 스포츠
8. 그 외		- 청각장애, 발달장애 - 과거 사기를 당한 경험이 많아서 사람을 경계하며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 - 술 먹고 끼리끼리 모여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혼자 있는 것이 좋음

서울역 디딤돌하우스_B

1. 입주	입주경로	- 쪽방 주민들이 받는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사
	과거주거형태	- 용산, 후암동 등 근처 작은방에 거주
2. 거주기간		(1년 정도)
3. 일상생활	하루일과	- 용산구청 공공근로 근무 중
	식사방법	- 맛있는 게 있으면 이웃들과 나눠먹기도 함
4. 차별성	과거거주공간	- 예전 거주공간보다 방의 크기가 큼. 끝 방이라 조금 추움
	주변쪽방	-
	월세	- 현재 19만 원 - 예전에 살던 곳은 20~24만 원가량
5. 공용공간	사용빈도	- 다리가 불편하여 거실/주방은 이용하지 않으며, 방에서 거의 해결 - 화장실, 세탁실, 샤워실은 잘 이용함
	관리, 규칙	- 참여하지 않음
	거실공간에 대한 생각	-
6. 이웃과의 친분	연락처 수	-
	쪽방촌 내 친한 이웃	-
	건물 내 친한 이웃	- 같은 층에 사는 302,301호 이웃들과 친하게 지냄 - 다른 사람들은 만나도 인사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건네지도 않게 됨
7. 쪽방촌 내 활동	활동 참여	- 참여 안 함
	희망하는 취미생활	-
8. 그 외		- 다리사고로 수술을 해서 불편한 상태

서울역 디딤돌하우스_C

1. 입주	입주경로	-
	과거주거형태	-
2. 거주기간		-
3. 일상생활	하루일과	- 남산 산책
	식사방법	- 시장에서 반찬거리를 사오거나 야채를 사서 공동주방에서 조리하고 방에서 식사
4. 차별성	과거거주공간	- 환기할 수 있는 창문이 커서 좋음. (습기 등 관리의 문제)
	주변쪽방	- 거실공간이 주민들에겐 좋은 공간
	월세	-
5. 공용공간	사용빈도	- 거실: 예전에 외부사람들 방문 시 사용하거나, 가끔 함께보며 간단히 술을 마시기도 했는데, 요즘은 사용하는 사람이 없음 - 주방: 조리시 사용 (주1회)
	관리, 규칙	- 내가 사용해야 하니까 스스로 청소하게 됨 - 가끔 번기 막히면 뚫음 - 수도 등 문제가 있을 때 직접 부품을 사와서 고치기도...

	거실공간에 대한 생각	- 잘 사용 안 하지만 있으면 좋음. 나름대로 개인적인 사용이 있기 때문. 넓은 공간이 없으면 답답함 - 주방 사용만으로도 경제적으로 도움 됨
6. 이웃과의 친분	연락처 수	-
	쪽방촌 내 친한 이웃	-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음.
	건물 내 친한 이웃	- 302, 304, 202호 이웃과 친하게 지냄
7. 쪽방촌 내 활동	활동 참여	-
	희망하는 취미생활	-
8. 그 외		- 일부 사람들이 안하고 제지를 가할 경우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어있음
서울역 디딤하우스_D		
1. 입주	입주경로	-
	과거주거형태	-
2. 거주기간		-
3. 일상생활	하루일과	- 산책, 롯데마트 아이쇼핑 등
	식사방법	- 시장에서 반찬거리를 사오거나 야채를 사서 조리하고 방에서 식사
4. 차별성	과거거주공간	-
	주변쪽방	- 공간이 인근건물들에 비하면 '특급': 야외 테라스, 주방 등
	월세	-
5. 공용공간	사용빈도	- 자주 사용 - 거실: 관리가 안되어 냄새 나고 엉망 - 주방: 가끔 친구들과 라면 끓여먹음, 이웃들과 고기도 구워먹음
	관리, 규칙	- 내가 사용해야 하니까 관리를 하기 싫어도 할 수 밖에 없음 - 가끔 변기 막히면 뚫음 - 보일러함, 난방 관리
	거실공간에 대한 생각	- 사용 안 해도 있으면 좋음. 활용하게 되어있음 - 주방 사용만으로도 경제적으로 도움 됨
6. 이웃과의 친분	연락처 수	-
	쪽방촌 내 친한 이웃	-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드뭄. 대화가 안됨
	건물 내 친한 이웃	- 301호 이웃과 옛날부터 알았고, 304호 이웃과는 근처에서 자주 마주치던 사이로 지금도 가까이 지냄. 202호 친함 - 남한테 피해주던 사람들은 나간 상태
7. 쪽방촌 내 활동	활동 참여	- 참여 안 함: 함께하고 싶은 생각 없음 - 반상회는 필요 없음
	희망하는 취미생활	-

8. 그 외		- 규칙 등이 있어도 듣는 사람이 없고,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음. 외부자가 관리하면 오히려 개판이 됨 - 뇌종양으로 시한부판정
서울역 디딤돌하우스_E		
1. 입주	입주경로	-
	과거주거형태	- 고시원 거주 - 지방에서 숙식해결하며 근무
2. 거주기간		- 세번째 입주자 16년 6월 입주(2년 9개월)
3. 일상생활	하루일과	- 용산구청 공공근로 근무 중: 15:00까지 공원관리인으로 근무 - 15:00 이후에 귀가하거나 외출
	식사방법	- 주방에서 취사하고 방에서 식사
4. 차별성	과거주거공간	- 비용은 더 저렴한 곳(고시원 등)도 있지만 생활은 디딤돌이 좋음
	주변쪽방	- 소음처리가 되고 복도가 있으니 화재 시 더 나옴. - 도둑이 없고, 인근에서 제일 좋음
	월세	- 현재 19만 원 - 일반쪽방보다 저렴 - 구세군에서 운영하는 데 중에는 월세3만 원+적립금5만 원으로 많이 저렴한 곳도 있음
5. 공용공간	사용빈도	- 거실: 1~2명이 주로 사용, 일부 주민들은 급할 때만 사용. - 주방, 거실: 취사시 사용 - 옥상: 빨래 널 때 사용
	관리, 규칙	- '여기(주방)가 내 책임'이라고 생각: 거실에 불이 켜져 있으면 한번씩 들러 확인 - 301, 302호가 규율반장 역할을 하고 있음: 공지사항 등 스스로 부착, 관리 - 공용 냉장고 관리함
	거실공간에 대한 생각	- 거실은 필요 없고, 취사장이 화장실과 별도로 넓게 있는 것이 중요 - 방이 답답하면 거실이 아니라 밖으로 나감
6. 이웃과의 친분	연락처 수	-
	쪽방촌 내 친한 이웃	-
	건물 내 친한 이웃	- 301, 302, 304호와 가까이 지냄 - 103, 202, 205, 207호 등 대부분의 이웃들의 안부를 알고 있음 - 203호: 소음문제로 갈등
7. 쪽방촌 내 활동	활동 참여	- 참여 안 함 - 다시서기 관련 활동을 많이 하고 있음
	희망하는 취미생활	-
8. 그 외		- 노숙인 상담한 것을 기반으로 연극대본을 쓰기도 함

		- 건물의 임대기간을 모른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음 - 건물 주인을 통해서 추천 받아 새로운 주민을 모집하는 것이 관리 면에서 나음
서울역 디딤돌하우스_F		
1. 입주	입주경로	-
	과거주거형태	- 오이도 근처 거주 - 동자동에서 거주한지 10년가량 됐으며 - 동자동의 작은 방 거주
2. 거주기간		17년 3월 입주 (2년 1개월)
3. 일상생활	하루일과	- 6:00 기상 - 7:00 아침식사 준비 - 8:00 아침 식사(주방에서 준비하고 식사는 방에서 혼자 함) - 식사 이후 외출: 동료들 일하고 있으면 도와줌 / 동자동사랑방 방문하여 어려운 사람들 방 청소 도와줌 / 누군가의 장례식 방문 / 장보러 후암시장 - 식도락에서 점심식사 - 18:00 이후 귀가
	식사방법	- 아침/저녁은 방에서 혼자 식사: 후암시장에서 장을 봐옴 - 시장에서 혼자 사먹기도 하고, 가끔 이웃과 나가서 사먹기도 - 점심식사는 주로 식도락에서
	과거거주공간	
4. 차별성	주변쪽방	- 옛날 살던 데가 훨씬 낫다고 생각
	월세	- 상담소는 신경 써 주기만하고... - 샤워실, 주방, 화장실 등이 있어서 좀 더 나음
	사용빈도	- 현재 20만 원
5. 공용공간	관리, 규칙	- 주방: 요리(가스렌지 사용)할 때만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음 - 욕상: 사용하지 않음 - 세탁실: 사용 - 거실: 빨래 널을 때 사용
	거실공간에 대한 생각	- 상담소에서 관리 - 청소는 개인이 알아서 - 주방, 거실이 가까워서 직접 청소 - 세탁실, 화장실은 누가 청소하는지 모름
6. 이웃과의 친분	연락처 수	- 예전엔 옆방 사람들과 거실에 앉아서 맛있는 거 나눠먹고 담배도 피우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음
	쪽방촌 내 친한 이웃	- 디딤돌하우스 외 동네사람들, 사랑방 사람들과 친함
	건물 내 친한 이웃	- 옆방은 나이 드신 분이 살고 병원에 입원
7. 쪽방촌 내 활동	활동 참여	- 참여 안 함
	희망하는 취미생활	-

8. 그 외		-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음 - 이웃 간에 친하지 않으면 같이 어울리려고 하지 않음
서울역 디딤돌하우스_G		
1. 입주	입주경로	- 아는 친구가 다시서기에 연락해서 쪽방을 소개받음
	과거거주형태	- 고시원 거주
2. 거주기간		16년 8월 입주 (3년 6개월)
3. 일상생활	하루일과	- 7:00 기상 - 9:00 빨래터 자활출근 - 14:00 퇴근 - 방에서 tv 시청 / 일요일에는 교회에 나감 / 자활방법대 등 활동
	식사방법	- 아침식사는 거의 하지 않음 - 점심은 빨래터 안에서 해먹음 - 저녁은 집에서 주로 라면으로 식사
4. 차별성	과거거주공간	- 훨씬 좋다고 생각. 비슷한 방인데 저렴하기 때문
	주변쪽방	- 더 낫다고 생각 - 주방, 세탁실이 있어서 더 편리함
	월세	- 현재 18만 원
5. 공용공간	사용빈도	- 주방: 설거지할 때만 사용 - 세탁실: 사용
	관리, 규칙	- 화단: 205호가 물을 줌 - 주방, 세탁실 등 누가 청소하는지 모름. 돌아가면서 할 것
	거실공간에 대한 생각	- 쓸 일이 없음
6. 이웃과의 친분	연락처 수	-
	쪽방촌 내 친한 이웃	- 자활을 하면서 동네 이웃들과 친해짐
	건물 내 친한 이웃	- 친한 이웃 있음. - 몇 호에 누가 사는지, 이사 가셨는지,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을 알고 이름을 알고 있음
7. 쪽방촌 내 활동	활동 참여	- 빨래터 등 봉사 많이 했음 - 매주 1번 자활방법대활동 참여(3년째): 월 회의 참여
	희망하는 취미생활	-
8. 그 외		- 둘 이상이 있으면 부딪히니까 혼자 있고, 혼자 사는 것이 좋음

- 남대문 디딤돌하우스

남대문 디딤돌하우스 가		
1. 입주	입주경로	- 다시서기의 소개
	과거주거형태	- 간병 일하면서 동거 - 병원 입원 > 고시원 거주 > 병원 입원
2. 거주기간		18년 01월 입주 (1년 2개월)
3. 일상생활	하루일과	- 종로 바둑 두러 가기도 함 - 다리상태에 따라 주말에 교회 나감
	식사방법	- 방에서 식사 - 교회에 가면 으레 밥을 주는데 자존심 때문에 얻어먹지 않으려고 함
4. 차별성	과거거주공간	- 고시원은 25~30만 원. 침대도 있고 좋았는데 추웠음 - 겨울에 찬물이 나오는 곳이 많은데, 디딤돌은 사철 따뜻한 물이 나와서 좋음
	주변쪽방	- 대부분 지저분한 쪽방에 비해 디딤돌은 지저분하더라도 자원봉사자 등이 도와줌
	월세	- 현재 23만 원
5. 공용공간	사용빈도	- 샤워실: 2~4일에 한번 - 싱크대: 식사 후 바로 설거지
	관리, 규칙	- 청소하는 사람이 있음 - 싱크대는 사용하는 사람이 뒷정리하는데 더럽게 쓰는 사람이 많아서 불만이 있음 - 화장실: 더러운 것을 보면 직접 청소하기도 함
	거실공간에 대한 생각	- 조용히 대화만 나누는 사람들에게겐 좋을텐데, 술 마시는 사람들이 많아서 100% 술 먹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시끄러워 질 것. 오히려 술 먹는 사람들 도와주는 일이 될 것
6. 이웃과의 친분	연락처 수	- 위급 시 119 호출 - 간병할 때 알던 할머니 - 핸드폰보다 책장에 수기로 전화번호를 적어놓음 - 관리자, 교회사람들, 산악회 등 5개
	쪽방촌 내 친한 이웃	-
	건물 내 친한 이웃	- 1층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음. 대부분 인사만 하고 지내며, 옆방에 동생들하고는 방을 넘나들면서 고민을 들어주는 사이
7. 쪽방촌 내 활동	활동 참여	-
	희망하는 취미생활	- 바둑 두는 것 좋아하지만 이 동네 사람들은 술 마시면서 바둑을 두기 때문에...
8. 그 외		- 다리가 불편해서 구부리지 못함 - 될 수 있으면 친구를 안 만들고, 상대방을 안 건드리려고 함. 나에게 위협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 - 내가 술선수범하면 주변에서 따라온다고 생각. 먼저 베풀어야 돌아오고 그렇게 관계가 생겨남

남대문 디딤돌하우스 나		
1. 입주	입주경로	- 거주 쪽방 개발매입으로 인해 옮김
	과거거주형태	- 근처 쪽방에 거주 - 화현동 70년 거주
2. 거주기간		(1년 거주)
3. 일상생활	하루일과	- 비깅에 나갔다 들락날락 별거 없다 - 노인정 나감 - 신문 봄(3가지) - 6:00 기상 / 신문 봄 / 밥 한술 뜸 / 남산, 동네 혼자 산책 - 주말 : 11:00~12:00 남대문교회
	식사방법	- 점심은 노인정에서 해결
4. 차별성	과거거주공간	- 이전의 방은 컸음 - 가족처럼 지냄
	주변쪽방	- 저렴한 만큼 방이 작음 - 상담소가 관리하는 건물
	월세	- 현재 21만 원 - 이전 쪽방 24~25만 원
5. 공용공간	사용빈도	- 공용냉장고 존재는 아냐, 본인은 사용하지 않음
	관리, 규칙	- 싱크대 : 더러우면 본인도 닦음 - 화장실 : 청소하는 사람(관리자) 있음
	거실공간에 대한 생각	- 안 해 봐서 모르겠음, 마음대로 안 될 것, 관리 운영이 중요하고 힘들 것, 그래도 있으면 좋을 것
6. 이웃과의 친분	연락처 수	- 친구번호 등 많음 - 딸 둘과 연락하고 지내고 - 딸 집 틈틈방문 - 아프면 바로 병원 찾아감(혜화, 서울대학병원)
	쪽방촌 내 친한 이웃	- 오래살아 이웃과 친분있음, 노인정에서 주로 모임
	건물 내 친한 이웃	- 거주민, 노인정에 못 나오게 하지는 않지만 나올 수 있을 만한 사람 없음 (화비, 지혜가 있어야함) - 산책 - '같이가지'라고 해도 갈 사람 없음 - 대부분 인사정도만 하고 지낸다
7. 쪽방촌 내 활동	활동 참여	- 상담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있음 - 술 먹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싫음
	희망하는 취미생활	- 노인정에서 바둑, 장기 등 - 개인 등산, 산에서 만남(구파발, 도봉산)
8. 그 외		- 원래부터 음주하지 않음 - 본토 동네 거주민 - 상담소를 '나사로'라고 표현 - 우편물 노인정으로 받음 - 상담소는 매일 하우스 방문 관리함 - 주로, '동'에서 진행되는 활동에 참여

		- 딸들이 경제적 능력(연세대 졸업, 병원 근무)이 있으나, 불편할까봐 혼자 떨어져 자냄 - 상담소 운영주체 변경 등에 대해 알고 있음(정확한 정보는 아님) - 상담소 지원 많다
남대문 디딤돌하우스_다		
1. 입주	입주경로	- 상담소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복지사를 알게 되었고, 건물 관리 일부를 맡고 월세 감면 조건으로 입주하게 됨
	과거주거형태	- 근처 옥탑방
2. 거주기간		-
3. 일상생활	하루일과	- 남산 산책 자주 감. 남대문시장 구경 - 생활반경은 방 아니면 바깥(남산): 이 동네에서는 보면 안 되는 게 많음
	식사방법	-
4. 차별성	과거거주공간	- 옥탑에도 싱크대, 화장실, 샤워실이 다 있었고 야외공간, 방도 더 넓었는데 디딤돌 방이 그에 비하면 작아서 답답함.
	주변쪽방	- oct가 있기 때문에 공용냉장고에서 남의 것을 꺼내가지 않음. - 시끄럽거나 싸움이 적음 - 인근 쪽방들에 비하면 '상'급: 온수가 나오고 통풍이 잘되기 때문
	월세	- 현재 20만 원 - 옥탑 16만 원
5. 공용공간	사용빈도	- 싱크대: 식사 후 바로 설거지 - 세탁실: 빨랫감 모아뒀다가 주1회 사용 - 창고: 빨래 널 때 사용
	관리, 규칙	- 필요 시 건물 내 고치는 일 등을 함
	거실공간에 대한 생각	- 거실공간이 생기면 안 됨. 술 먹는 사람들이 많아서 술 먹게 됨. 편리를 제공하고자 만든 휴식공간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음. - 사람들이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 필요
6. 이웃과의 친분	연락처 수	- 친한친구 7개 - 사업처 등 - 돌아가신 어머니와 친하게 지내시던 분을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연락드림
	쪽방촌 내 친한 이웃	-
	건물 내 친한 이웃	-
7. 쪽방촌 내 활동	활동 참여	- 둘레길 프로그램 참여 - 특별자활 참여
	희망하는 취미생활	-

8. 그 외		- 상담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는데, 특별자활 활동으로 간호사와 함께 거주민들을 만나고 나니 상담소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 - 이 동네 사람들은 관심이 있지 않는 이상 철저하게 서로가 타인임 - 공사가 진행되는 계절에는 공장에서 일함. - 상담소, 전문가가 '키'만 잡아주면 주민들이 움직이고 의식개혁이 일어날 수 있음 - 방에서만 지내는 사람들을 밖으로 끌어낼 필요 있음
남대문 디딤돌하우스_라		
1. 입주	입주경로	-
	과거주거형태	- 노숙 경험 - 중림동 거주 8년
2. 거주기간		17년 11월 입주 (1년 4개월)
3. 일상생활	하루일과	- 6:00~6:30 기상 - 아침 겸 점심은 식당에서 사먹음 - 서울역 대합실에 앉아있음 - 23:00 귀가 - 0:30 취침
	식사방법	- 식사를 직접 해먹는 경우 없음 - 돈이 없으면 굶기도 함. 밥을 주는 데가 있지만 가지 않음.
4. 차별성	과거거주공간	- 방이 좁고 보일러도 안 되는 낡은 집에 살면서 병을 많이 얻음 - 디딤돌은 예전에 살던 곳에 비하면 천국: 전기 판넬로 방이 따뜻함, 깨끗하고 조용함
	주변쪽방	- 쪽방들은 술 취한사람들이 떠들어서 술 먹지 않는 사람들은 견디기 힘들고 좁고, 씻기가 불편하고, 더러움
	월세	- 현재 20만 원 - 예전에 살던 곳도 20만 원
5. 공용공간	사용빈도	- 세탁실, 싱크대: 사용하지 않음 - 샤워실: 하루 한 번 정도 사용
	관리, 규칙	-
	거실공간에 대한 생각	- 거실공간이 생기면 좋지만 꼭 필요하진 않음. 커피 들고 옆방에 가면 되니까 - 디딤돌 사람들은 다른 쪽방 사람들과 다르게 술 먹고 그러진 않을 것
6. 이웃과의 친분	연락처 수	-
	쪽방촌 내 친한 이웃	- 서울역가면 노숙할 때 알던 사람들 많은데, 인근 쪽방에 많이 거주. 식사도 같이 하고 대화 많이 함
	건물 내 친한 이웃	- 건물 내 대부분 사람들과 친하지만 이름은 모르고 지냄
7. 쪽방촌 내 활동	활동 참여	- 참여 안 함
	희망하는 취미생활	- 봉사를 하고 싶지만 몸이 불편해서 하지 못함

8. 그외		-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서 활동반경이 넓지 않음. 거의 서울역 부근에만 있음 - 술 먹는 사람들은 파하고 술 안 먹는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함
남대문 다담돌하우스_마		
1. 입주	입주경로	- 인근에서 소개 - 남자들이 같이 살자고 괴롭히는 경우가 많아 이사를 자주 다니게 됨
	과거거주형태	- 오산, 수원에서 가족들과 거주 - 인천 거주: 작은이모와 거주 - 동자동 인근에서 거주
2. 거주기간		18년 8월 입주 (7개월)
3. 일상생활	하루일과	- 2:00 기상 후 기도 / 피곤하면 5:00 기상 - 7:00~8:00경 아침식사 - 요가 참석 / 성당에 가거나 / 전동차를 타고 바람 쐬러 다님. 인천에 자주 감
	식사방법	- 성당에서 다같이 밥을 해먹음 - 반찬 자원봉사서 냉장고에 저장해뒀다가 꺼내서 방에서 식사 - 쌀과 반찬이 넘쳐남
4. 차별성	과거거주공간	- 지금 환경 관찮음. 아주 편함 - 예전에는 샤워실이 불편했는데, 지금은 샤워실에 따뜻한 물도 나오고 좋음 - 만취자, 음주자 등 관리가 잘되어 건물이 조용함
	주변쪽방	-
	월세	- 현재 21만 원 - 주변 쪽방은 24~25만 원 - 예전 살던 곳은 20만 원
5. 공용공간	사용빈도	- 샤워실, 싱크대 자주 이용 - 공용냉장고 사용
	관리, 규칙	- 건물 관리하는 최선생님 - 청소하는 사람(2층 주민)이 주로 청소 - 사용하는 것은 정리하고 나눔: 개인적으로 청소도구를 구입해서 비치해놓기도 함
	거실공간에 대한 생각	-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사용할 것 같음
6. 이웃과의 친분	연락처 수	- 아들&딸 있으며, 연락하고 지냄. 간혹 만나기도. 급한 일 생기면 아들한테 연락 - 시청/동사무소 전화번호: 전동차가 고장나거나 필요할 때 - 최선생님: 건물 불편한 것 있을 때
	쪽방촌 내 친한 이웃	- 상담소, 간호사, 청소부, 최선생님(관리 직원)이 있는데, 자주 안부를 묻고 친절하게 대해줘서 반가움
	건물 내 친한 이웃	- 친한 사람 없음 - 2층에 있는 형님이 따뜻하게 대해주심 - 남자들이하고는 편하지가 않아서 별로 친하지 않고 딱딱하게 지냄

7. 쪽방촌 내 활동	활동 참여	- 요가 (한 달에 한번)
	희망하는 취미생활	-
8. 그 외		- 다리 장애 있음
남대문 디딤돌하우스_바		
1. 입주	입주경로	-
	과거주거형태	- 인근 쪽방 4년 이상 거주
2. 거주기간		(2개월)
3. 일상생활	하루일과	-
	식사방법	- 방에서 직접 조리함
4. 차별성	과거거주공간	- 조용함 - 예전 살던 곳은 tv,냉장고가 있었는데, 디딤돌은 tv,냉장고를 개인이 사야 해서 불만족 - 샤워실: 화장실과 분리되어있고 넓어서 좋음
	주변쪽방	-
	월세	- 현재 18만 원 - 예전 거주공간은 25만 원
	사용빈도	- 싱크대: 사용함 - 공용냉장고: 싸움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음 - 세탁실: 사용하지 않음
5. 공용공간	관리, 규칙	-
	거실공간에 대한 생각	-
6. 이웃과의 친분	연락처 수	-
	쪽방촌 내 친한 이웃	-
	건물 내 친한 이웃	- 2명 정도 친하게 지냄. 이름을 알고있음
7. 쪽방촌 내 활동	활동 참여	- 몸이 아파서 참여 안 함. 앞으로는 참여할 생각 있음
	희망하는 취미생활	-
8. 그 외		- 대인관계를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함. 디딤돌하우스를 택한 이유도 조용해서 - 정신과 약 복용 중
남대문 디딤돌하우스_사		
1. 입주	입주경로	-
	과거주거형태	- 동자동 인근 쪽방 12년 거주 - 병원 입원
2. 거주기간		17년 11월 입주 (1년 4개월)
3. 일상생활	하루일과	- 6:00 기상

		- 방청소, 아침식사 - 9:00 부터 노인정 / 방에서 tv시청 - 21:00 취침
	식사방법	- 반찬은 사먹거나 사랑방에서 지급
4. 차별성	과거거주공간	- 예전 살던 곳은 싱크대는 없고, 세탁기, 화장실만 있었음 - 화장실에서 샤워를 했음 - 디딤돌은 조용하고 술 먹는 사람이 많지 않음
	주변쪽방	-
	월세	- 현재 22만 원 - 예전 거주공간은 25~30만 원
5. 공용공간	사용빈도	-
	관리, 규칙	- 건물 관리를 하기로 계약함 : 주1회 복도&화장실 청소, 이틀에 한번씩 쓰레기 정리 - 사는 사람들이 직접 청소하기도 함
	거실공간에 대한 생각	- 잘 이용 안 할 것: 각자 방에 커피 등이 있고 안 찬하기 때문
6. 이웃과의 친분	연락처 수	- 처자식들과 연락 끊김
	쪽방촌 내 친한 이웃	-
	건물 내 친한 이웃	- 옆방 사람들과 친하진 않고 인사만 하는 정도
7. 쪽방촌 내 활동	활동 참여	- 참여 안 함
	희망하는 취미생활	-
8. 그 외		- 귀가 잘 안 들려서 보청기 사용 - 허리 수술 - 별로 사람들과 친하고 싶은 생각 없음
남대문 디딤돌하우스_아		
1. 입주	입주경로	- 아는 동생의 소개
	과거주거형태	- 서울역 인근 작은 방
2. 거주기간		17년 11월 입주 (1년 4개월)
3. 일상생활	하루일과	- 7:00 기상 - 빨래, 샤워 - 식사 - 방에서 tv시청 / 병원 / 산책 / 방에서 운동 / 서울 사무실 방문 - 주말에는 교회에 나감 - 1:00~2:00 경 취침
	식사방법	- 쌀은 동사무소에서 신청해서 받음 - 지원되는 반찬들을 모아뒀다가 방에서 조리함 - 여자친구와 같이 방에서 식사

		- 교회에서 도시락을 나눠주면 갖고 와서 방에서 여자친구와 식사 - 몸 불편한 이웃에게 김치찌개 넉넉하니 주겠다고 얘기하지만 같이 식사하진 않음
4. 차별성	과거거주공간	- 예전 살던 곳은 추우면 물 떨어지고 보일러 안 들어와서 샤워가 불가했으나 디딤돌은 따뜻한 물 나눔
	주변쪽방	-
	월세	- 현재 21만 원 - 예전 거주공간은 16만 원
5. 공용공간	사용빈도	- 샤워실 자주이용. 여름에는 하루3번씩 하기도
	관리, 규칙	- 화장실 더러운 거 보이면 청소함 -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자고 생각'
	거실공간에 대한 생각	-
6. 이웃과의 친분	연락처 수	- 15개 정도 - 부모님이랑 가끔 연락 - 급할때 간호사에게 연락 - 교회권사님과는 친하지만 연락처는 없음
	쪽방촌 내 친한 이웃	-
	건물 내 친한 이웃	- 같은 건물에 여자친구 있음 - 103호 형님과 알고 지냄 - 다른 이웃과는 대충 인사만하고 가까이 지내지 않음. 싸움이 많은 것이 싫음
7. 쪽방촌 내 활동	활동 참여	-
	희망하는 취미생활	-
8. 그 외		- 뇌출혈로 반신마비, 장애
남대문 디딤돌하우스 자		
1. 입주	입주경로	- 병원에 있다가 퇴원할 때쯤, 복지사의 소개
	과거거주형태	- 일하는 사람들과 여관 거주 - 병원에 9개월간 입원
2. 거주기간		17년 12월 입주 (1년 3개월)
3. 일상생활	하루일과	- 5:00 기상 후 tv시청 - 6:30 샤워, 세수 - 7:00 식사준비 - 8:00 아침식사, 정리 - 9:00 tv시청 - 10:00 남산 산책 / 남대문시장 구경 / 서울역 구경 /방 정리 / 병원 / 가끔 인천 or 도봉산 - 17:00 저녁식사 이후 tv시청 - 21:00~22:00 취침

	식사방법	- 교회, 성당, 상담소 등에서 나눠주는 반찬을 저장해놔다가 방에서 식사 - 후암시장에서 반찬을 사기도 함 - 수급비로 사먹기도 함
4. 차별성	과거거주공간	- 여관이 친구 등 청결하고 개인 샤워실을 사용할 수 있기에 편리하지만 비쌌
	주변쪽방	- 주변 쪽방을 잘 모름
	월세	- 현재 22만 원 - 여관 거주할 때는 60만 원
5. 공용공간	사용빈도	-
	관리, 규칙	- 샤워실&화장실 사용 순서 등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있음 - 앞 방에 거주하는 형님이 청소를 깨끗이 함
	거실공간에 대한 생각	-
6. 이웃과의 친분	연락처 수	- 쌀 지급, 수급, 병원관련 연락을 받기 위해 핸드폰이 필요하고, 그 이외의 용도는 거의 없음 - 비상상황 시 119 호출 - 예전 일할 때 알고 지내던 동생과 유일하게 자주 연락. 가끔 만나기도 함
	쪽방촌 내 친한 이웃	-
	건물 내 친한 이웃	- 깊은 얘기는 하지 않음. 인사하고 일상적인 얘기만 하며 지냄
7. 쪽방촌 내 활동	활동 참여	- 참여 안 함: 마음이 불편하고, 움직이지 않음
	희망하는 취미생활	-
8. 그 외		- 심장수술 이후 금주. 술이 차서 빨리 견지 못함 - 알고 지내던 대부분의 사람들과 연락 두절: 창피/비참하고 몸이 불편하기 때문 - 동네 사람들과 섞이느니 고독한 게 낫다고 생각

남대문 디딤돌하우스 차

1. 입주	입주경로	- 영등포상담소에서 주거지원 상담하다가 소개
	과거주거형태	- 고시원 거주 - 영등포 쉼터
2. 거주기간		17년 11월 입주 (1년 4개월)
3. 일상생활	하루일과	- 2:00~3:00시부터 거의 깨어있음(불면증) - 7:00~9:00 취침 - 방 정리, 남산 산책, 서울역&영등포 등에 친구 만나러 이동 / 종로에서 바둑을 둬 자활 / 음악 감상 / 병원 - 저녁식사
	식사방법	- 점심, 저녁식사만 함

		- 점심에 방에서 식사: 찌개 등 조리 - 반찬 등을 구입 - 가끔 사먹기도 함
4. 차별성	과거거주공간	- 규칙 많은 쉼터에 비해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어서 편함 - 겨울에 샤워할 때 시간대를 잘 못 맞추면 차가운 물만 나오는 것은 쉼터나 디딤돌이 같음 - 주방이 없어서 불편함 - 쉼터는 넓은 방을 공동사용, 쪽방은 좁은 방을 혼자 사용
	주변쪽방	-
	월세	- 현재 21만 원
5. 공용공간	사용빈도	-
	관리, 규칙	- 상담소에서 어르신에게 관리를 맡기고 방세를 저렴하게 해드리는 것 같음: 화장실/복도 청소
	거실공간에 대한 생각	-
6. 이웃과의 친분	연락처 수	- 5개 정도: 사촌형, 일하며 아는형님 등 - 아는 형님들이 서울역에 많음
	쪽방촌 내 친한 이웃	-
	건물 내 친한 이웃	- 친구는 없고, 인사 정도만 하며 지냄. 친하게 지낼 수가 없고 어울리고 싶은 생각이 없음. 술 먹고 싸우고 시끄러운 것이 싫기 때문
7. 쪽방촌 내 활동	활동 참여	- 취향에 맞는 활동이 없어서 참여 안 함
	희망하는 취미생활	- 등산, 바둑
8. 그 외		- 기흥 때문에 자주 입원
남대문 디딤돌하우스_카		
1. 입주	입주경로	- 쪽방촌을 소개시켜달라고 복지사님께 부탁
	과거거주형태	- 병원 입원 6개월 - 고시원 거주
2. 거주기간		18년 07월 입주 (9개월)
3. 일상생활	하루일과	- 대중없이 일어남 (수면장애로 밤샘 때도 있고 아침에 잠들 때도 있음) - 방에서 tv시청, 빨래, 모임, 사랑방 - 일주일에 1~2번은 단주모임(알콜중독자 모임) 참석 - 24:00 취침. 혹은 더 늦게 취침할때도 있음
	식사방법	- 자원이 많기 때문에 돈 없어도 살 수 있을 정도. 자원 외 다른 게 먹고 싶을 때 개인적으로 마트를 가기도 함 - 음식 등 배급 받지 않으려고 함 - 식사는 직접해서 방에서
4. 차별성	과거거주공간	- 화장실, 샤워실 환경이 더 좋음
	주변쪽방	- 화장실, 샤워실 환경이 인근에서 제일 잘 되어있음. 깨끗 - 남자거주자가 많아서 거침

	월세	- 현재 18만 원 - 예전 고시원은 25~7만 원
5. 공용공간	사용빈도	- 공용 냉장고 사용: 칸을 정해놓고 사용 - 세탁실: 세탁물 모았다가 한번에 사용 - 공용창고: 빨래 널음 - 싱크대: 도마,칼 등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비치해둠
	관리, 규칙	- 2층에 거주자가 청소함 - 개인적으로 청소도구를 구입해서 비치해놓기도 함. - 청소를 할 때도 있음
	거실공간에 대한 생각	- 그보다 빨래 널 수 있는 공간이 중요 - 있으면 당연히 좋음
6. 이웃과의 친분	연락처 수	- 일본에 있는 어머니랑 가끔 통화 - 복지사님 전화번호 많음
	쪽방촌 내 친한 이웃	-
	건물 내 친한 이웃	- 3층 사람들하고 거의 대화를 안 함 - 동갑내기 친한 이웃 외에는 인사만 하고 자냄
7. 쪽방촌 내 활동	활동 참여	- 참여 안 함
	희망하는 취미생활	- 악기 관련
8. 그 외		- 알콜중독 - 교회, 복지사님 등이 찾아오는 것이 귀찮음 - 밖에 나가면 돈을 쓰게 되니까 자주 안 나가려고 함 - 어울리다 보면 문제가 생기니까 친해지고 싶지 않음

작은연구 좋은 서울 18-13

도시빈곤층의 공동체 형성 고찰
-서울시 쪽방밀집지역 저렴쪽방 중심으로

발행인 서왕진

발행일 2019년 5월 1일

발행처 서울연구원

비매품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이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